

—

///





CONTENTS

등록번호 충남 라01136(1998.6.1)
E-mail:8529005@hanmail.net
홈페이지:gongju.cult21.or.kr
통권 제261호 2007년 1-2 월호



公州의 어제와 오늘 2



신년사 _ 3



웅진칼럼 _ 9



특별기고 I 공주를 사랑한 옛사람 옛노래 _ 11

공주를 따뜻하게 하는 사람들 _ 15



의회를 찾아서 _ 19



특집 II 공주의 땅이름 이야기 _ 22



우리고장의 옛 자취를 찾아서 _ 20



공주의 인물 _ 32



내고장 소식 _ 34



- 시정소식

- 내고장 소식

- 출향인사·고장인사 동정

미담 _ 42

예술의 향기 _ 48

문화원 소식 _ 57



公州의 어제와 오늘

1958년 공주결핵요양원 개원



오곡동으로 이전한
현 국립공주병원



전 공주결핵병원 건물에는 공주대학교 인문사회과학 단과대가 사용하고 있다.



정재욱 공주문화원장

태고의 신비를 간직한 민족의 영산 계룡산 영봉 동넙으로부터 서기 어린 햇살이 온누리를 비추는 가운데 우리 모두의 희망과 국운융성의 여명과 함께 정해년의 새 해가 밝았습니다.

존경하는 13만 공주시민 여러분께 600년만에 한번 찾아온다는 황금돼지의 해인 금년 한해 뜻하시는 모든 소망이 훌륭히 성취되시어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충만 하시고 나아가 이 나라와 공주의 발전에 큰 기여가 되는 가장 보람차고 값진 새해가 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성신(星辰)의 어김없는 법도에 따라 해가 바뀌고 새해를 맞을 때마다 모든 사람들은 희망과 행복을 염원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희망을 이야기할 마음에 여유조차 없이 여기저기에서 한숨소리만 들려오는 듯하여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한해를 많은 사람들은 경기침체로 지난 IMF 때보다도 더 생활이 곤궁해지고 사회는 계층간 극한적인 갈등과 대립으로 인하여 어렵고 힘들었던 한해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비관적인 일들만 있었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국내적으로는 유엔 사무총장에 반기문 장관께서 선출된 바 있고, 우리나라의 수출액이 3,000억 달러를 기록하는 등 우리나라의 위상이 국제적으로 높아지기도 하였으며, 지역적으로는 지난 5.31지방선거로 쇄신된 인적구성에 의한 새로운 비전제시, 호남고속전철의 남공주역의 확정이나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차질 없는 진행 등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었지만, 충청남도청 홍성 이전과 공주대학교 교명 변경 및 본부 이전에 따른 문제 등은 아픔과 갈등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정해년의 금년은 우리에게 그 어느 해보다도 중요한 한해임에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한 단계 도약시킬 것이냐? 아니면 수십 년의 퇴보를 할 것이

냐? 하는 국가의 명운이 제17대 대통령선거에서의 국민들의 선택에 달려있다 하겠습니까. 이번 대선에서는 능력 있고 국민을 사랑하고 사랑받을 수 있는 인물, 그래서 국민과 더불어 꿈과 희망을 키워나가는 인물, 과거에 집착하기보다는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고 민심 속을 파고드는 화합형 리더십의 인물, 현란한 말보다 정책을 앞세워 묵묵히 일하는 나라의 어른다운 대통령이 진정으로 필요한 해입니다.

한편으로 오늘의 국민적 고통분담의 불행을 초래한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국민적 자성(自省)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바로 그 근원은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과 생활주변에 도사리고 번져 있는 자만과 교태와 허영과 낭비에서 비롯된 도덕적 타락과 정신적 해이로 인하여 마침내 집단, 또는 개개인의 이기주의의 팽배로 계층간 갈등에서 초래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의 고난과 어려움을 결코 타인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거나 좌시할 수도, 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짊어지어야 할 십자가이며 21세기 대한민국의 재도약의 발판을 이룩하여 위대한 한국인의 강인한 공동체 의식과 저력을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역사적 사명을 지니고 있음을 망각하지 맙시다.

한 나라의 국운도 때로는 정체가거나 실기를 하면 그 민족은 급기야 공전퇴보 하듯이 역사 속에서 교훈을 얻어 국가를 운영하지 못한 민족은 같은 역사를 반복하여 끝내는 비참한 종말을 고하는 실상을 우리는 동서고금을 통하여 역력히 보아 왔듯이 우리는 오늘날 그와 같은 과오를 범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하여는 오늘의 현실과 미래를 직시하고 성찰하여 광정에 충실해야만 하겠습니다.

선천하지우(先天下之憂)하고 후천하지락(後天下之樂)의 공자말씀을 되새기면서 천하의 모든 사람들이 먼저 나라를 걱정하고 천하의 모든 사람들이 후에 스스로 즐길 줄 아는 애국적 민주시민의 자세만이 오늘날 우리나라가 당면한 정치와 경제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 확신하는바입니다.

끝으로 저희 문화원에서는 문화도시 공주의 위상을 높이는데 문화의 전당으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항상 변함없는 지도와 편달을 당부 드리는 말씀으로 신년사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준원 공주시장

존경하는 13만 공주시민 여러분!

희망찬 정해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해도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가운데, 13만 시민 모두가 꿈과 희망을 이루는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시는 변화 속에 내재된 위기들을 발전의 전기로 활용한다는 전략을 바탕으로 시가 보유한 잠재력을 최대한 동원하여, 변화하는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해 나아감으로써 우리 공주시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공주시민 여러분!

저는 민선4기 시정방향을 “힘찬 도전! 위대한 공주”로 정하고 지난 6개월 동안 시정을 이끌어 왔습니다. 지난 6개월은 농사를 짓기 위해 낱알을 고르는 단계였다면, 올해부터는 밭을 갈고 씨를 뿌리는 耕田播種의 단계라고 생각하고 시정을 운영해 나갈 방침입니다. 금년도 시정 운영 방향으로는,

첫째, 시민이 만족하는 행정을 위해 행정혁신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행정혁신을 통하여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창의적이고 능률적인 행정이 되도록 새로운 공직 패러다임을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성과를 지향하고 과학적 방법을 통해 경영행정을 실현해 나가겠으며, 권한과 책임을 위임하고 과거 잘못된 규정들을 정비하여 시민의 입장에 서서 일하는 서비스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신행정문화운동을 추진하여 잘못된 행정관행을 과감히 고쳐나가고, 불필요하거나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각종 제도를 정비하겠으며, 각종 행사도 구조조정을 통하여 내실 있고 효율적인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을 위해 정기인사를 사전에 예고하고, 인사시기를 고정하여 조직의 안정성을 확보하며, 근무평정 방법을 개선하여 대민(현업)부서 근무공무원을 우대하겠습니다. 또한 열심히 일한만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으로 특별승급제 운영, 으뜸혁신 공무원상 제정을 추진하고, 일 중심의 조직개편을 실시하여 더욱 역동적으로 시정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시정의 중요 정책과정

에도 시민, 전문가, 공무원이 함께 참여하는 삼위일체형 행정을 추진하여 완벽한 시정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민원인이 원하는 각종 증명서를 One-Stop로 처리할 수 있는 통합민원서비스 체계를 도입하고,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현안정책 자문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둘째, 지역 경제 활성화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고, 100만평규모의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첨단 유망 기업을 유치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의 대외 경쟁력과 이미지를 새로운 시각에서 부각시키는 문화상징화 사업과 공동브랜드 작업을 착수하고, 이와 함께 농민들의 소득증대를 도모하며 지역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재래 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차장 등 시설확충과 경영 혁신을 도모해 침체된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겠습니다.

셋째, 「5도2촌 주말도시 육성」입니다.

주5일 근무와 여가활동 증가에 맞추어 도시와 농촌을 잇는 자연친화적인 주말도시 육성, 농촌다운 환경조성, 마을의 역사·문화·풍습을 안내하는 노인도우미 양성, 공무원 평생마을 분담제 등을 운영하여 매력이 넘치는 농촌마을, 계절별로 다양한 흥미를 유발하는 농촌프로그램 체험지역으로 육성하여 농촌도 체험하고 휴양도 할 수 있는 주말도시로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이와 연계한 레저·스포츠 시설도 적극 유치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교통·생활 편의 증진입니다.

생활에 불편을 주는 문제를 우선 해결하고, 지역주민들의 생활편의를 증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시외버스 터미널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여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시내버스 운영 개선방안과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또한,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공영주차장과 민간부문 주차장 조성사업에도 총력을 기울여 주차난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산성재래시장 주변의 열악한 주차시설 확보에 주력하겠습니다.

종합문화센터를 건립하고 자전거도로망을 확충해 나가겠으며, 지역균형발전차원에서 구시가지 정비계획을 마련하여 도로와 상수도·주차장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생활 환경개선으로 살기 좋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또한 지방도·도시계획도로·농어촌도로·농촌불량주택 등을 개량하고, 농촌 정주기반 확충사업·농촌생활 환경정비 등으로 농촌주민과 도시주민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농촌을 만들겠습니다.

다섯째, 「삶을 풍요롭게 하는 복지·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새로운 복지수요를 충족하는 복지사업을 확대하고,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고 개발과 환경이 함께 고려되는 친환경 공주를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 유구천과 정안천을 자연형 하천으로 가꾸어 가겠습니다. 또한, 제민천·금학 생태학습장을 개발하여 수생식물과 물고기가 노니는 자연 친화적 하천을 개발하고, 금학수원지를 활용한 자연생태환경 복원으로 자연과 어우러진 생태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물이 있는 금강을 만들기 위해 하상보호공과 라버댐 설치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위생매립장 증설·담장 허물기 사업과 산림자원 개발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고령사회에 맞추어 노인일자리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매년 증가하는 국제결혼가정 지원과 복지봉사은행 활성화로 시민 모두가 건강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산적 복지기반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전통이 살아있는 문화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우리시의 역사적 전통을 살리되, 과거 속에 박제화 된 문화가 아닌 현대와 미래를 위한 문화도시로 수준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백제문화제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세계적인 축제로 육성하고,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백제문화권 특정지역 종합개발사업은 중앙부처 이해 설득, 충남도와 공동으로 국비확보, 민자유치 방안 모색을 통하여 정상 추진의 발판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방촌을 건설하여 우수한 공예상품의 개발과 판로확보에 주력하겠으며, 공산성에 백제유적 체험장과 드라마 세트장을 조성하여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지역특화산업발전을 위한 특구지정, 대학과 지역의 상생발전은 물론 지역인재양성을 위한 장학재단을 설립하는 등 학교 지원과 학력신장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고마나루 솔밭 잔여지 매입과 공주관광단지조성, 레저시설 유치, 금강둔치의 새로운 변신을 통하여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는 전통문화 교육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공주시민 여러분!

저는 공주 시정이 시민 여러분의 행복을 더하며, 단기적이고 가시적인 효과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공주시 발전에 든든한 주춧돌을 놓아 간다는 확고한 소명의식으로 시민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뜻을 모으고, 힘을 합하며, 노력하는 한해가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지난해 공주시정 발전을 위해 시민 여러분께서 지혜와 힘을 모아 주셨던 것처럼, 금년에도 시정에 항상 뜨거운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정해년 새해에도 13만 공주시민 모두가 뜻하시는 모든 소망들이 다 이루어지고, 각 가정에는 항상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동섭 공주시의회 의장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새로운 희망과 기대 속에 대망의 2007년도 정해년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시민 여러분 가정에 만복이 깃드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풍족히 이루어지시길 기원드립니다.

제5대 공주시의회는 그동안 시민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과 관심 속에 지난해 7월 개원하여 짧은 기간이었지만 고민하고 연구하는 의회가 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새해에도 우리 공주시의회는 시민 여러분께서 맡겨주신 책임과 사명을 성실히 수행하면서 “희망의 공주,행복한 시민”을 위하여

첫째, 시민의 신뢰와 사랑받는 생산적 의회를 구현하고

둘째, 기관단체와의 협력과 보완을 통하여 상생발전을 도모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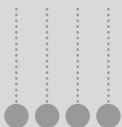
셋째, 공주의 경쟁력을 높이는 지원과 협력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면서 부족한 것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채찍과 충고를 부탁드립니다.

모쪼록 올 한해 여러분 모두 소원성취하시고, 가정에 평화와 기쁨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구 중 회_공주대학교 교수

‘황금돼지의 해’의 신년 이야기

다음 대통령은 어떤 분야에 노력을 하여야 하는가라는 설문에서 거의 60%의 사람들이 ‘경제’를 꼽았다고 한다. 그리고 금년 경제 성장률을 4.5%로 낮춰 잡았다는 정부 발표가 연말에 있었다. 원래 경제 성장률로 5% 잡았다가 0.5%를 낮췄던 것이다. 그만큼 경제가 어려울 것이라는 이야기로 들린다.

올해 정해년은 ‘황금돼지의 해’라고 떠들썩하다. 이러한 떠들썩함도 경제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다른 표현으로 생각된다. 어찌 되었든지 정해년을 맞이하여 우리 공주인들 모두 ‘부자’가 되시기를 기대하여 본다.

공주 파이팅! 공주 사람 파이팅!

결론부터 말하면, ‘황금돼지의 해’는 상업주의(商業主義)가 조작한 일종의 ‘신화’이다. 실제로 경험한 역사적 ‘현상’이나 ‘사실’이 아니라 선험적으로 믿고 싶은 ‘희망’인 셈이다. 알다시피 금년은 서력(西曆) 기원으로는 2007년 이고, 60갑자로 ‘정해년(丁亥年)’이다. 단기(檀紀)로는 ‘4340년’이며, 불기(佛紀)로는 ‘2551년’이지만 우리나라와 중국의 전통적인 불기로는 ‘3034년’이다. 공자 기원으로는 ‘2558년’이고, 회교 기원으로는 ‘1386년’이며, 일본 기원으로는 ‘2667년’이다. 옛날 아주 옛날 천간지지(天干地支)로는 ‘강오대연현(疆梧大淵獻)’(《史記》) 내지는 ‘강어대연현(強圉大淵獻)’(《이아爾雅》)이다.

이렇게 연도에 많은 이름이 붙는다는 것은 문화·종교·역사 따위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이야기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정해’를 오행·방위·색채·맛·소리 등등으로 적용한다면, 가공할 만한 생산력이 생긴다. 정(丁)은 오행으로 화(火)이며 방위로 남(南)이고, 색채로 붉은 색(赤)이며, 맛으로 쓴 맛(苦)이고, 소리로 치(徵)이다. 해(亥)는 수(水)이며 북(北)이고 검은 색(黑)이며 짙은 맛



(鹹)이고 우(羽)이다. 어디 그 뿐인가? 정은 허파(肺, 혹은 心)이고 염상(炎上)이며 해는 콩팥(腎)이고 윤하(潤下)이다. 정은 보는 것(視)이고 여름(夏)이며 앞(前)이다. 해는 듣는 것(聽)이고 겨울(冬)이며 뒤(後)이다. 숫자로 하면, 정은 3·4이고 해는 9·10이다. 자모로 하면, 정은 ㄴ·ㄷ·ㅌ·ㄹ이고 해는 ㅁ·ㅂ·ㅍ이다. 이런 논리로 가면, 결국 세칭의 ‘동양철학’이 되는 것이다.

이런 배경에서 ‘황금돼지의 해’가 느닷없이 생겨난 것이다. 돼지(亥) 앞에 황금(黃金)이 놓이려면, 오행의 금(金)이어야 한다. 그런데, 화(火)이다. 아무리 양보한다고 해도 ‘붉은 색’ 정도이다. 서울의 내놓으라 하는 역술가에게 황금돼지를 풀어보라고 해도 말이 되는 억지라고 전해왔다.

그런데 왜 ‘황금돼지의 해’가 확산되는 것일까? 이러한 확산 현상은 오늘 날의 문화 현상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처음 생각되는 것이 ‘기념일’의 횡행이다. 발렌타이데이, 빼빼 어찌고 하는 날, 화이트 어찌고 하는 데이……. 국적이 불투명한 날들이 너무 상업주의와 결합하여 횡행한다. 금년은 경제가 어렵다보니 갑자기 ‘황금돼지’와 결합해버린 것이다.

새로운 해가 밝았다. ‘삼일작심’이 된다고 할지라도, 단기적으로 일년 계획을, 장기적으로 평생 계획을 세워보기를 권유하고 싶다. 사실 ‘자기 성취 내지는 발전’이 있기를 바란다면, 먼저 정확한 ‘자기 위치’의 확인이 필요하다. ‘나’가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어떤 위상에 처해 있는가를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그 방법의 하나로 8:2 내지는 7:3를 제안해 본다. 여기서 8과 7은 자기의 ‘긍정적인 점’을 말하고 2와 3은 ‘부정적인 점’을 말한다. ‘자기 탐구’에서 2 내지 3 가지는 스스로 ‘부정적인 점’을 찾아내거나 만들어 내야 한다는 뜻이다. 그것이 바로 자기가 걸어가야 할 방향이 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은 8 내지 7의 비율로 자기를 ‘부정적인 점’으로 몰아가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다. 염세주의가 되어 ‘자살’을 기도하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일생은 마라톤이다. 당장 실패한다고 해서 영원히 실패한다는 것은 아니다. 마라톤 경기에서 어느 지점부터 ‘속력’을 낼 것인지 전략이 필요한 것이다.

속도 조절론이 바로 인생의 성패인 것이다. 이런 장기간 단기 계획을 세우며 ‘인생 전략’도 세워 보기를 다시 권유해 본다.



공북루(拱北樓)를 짓고



백원철 공주대학교 교수/공주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장

선조 때의 문신 유근(柳根) 공은 공주와 인연이 깊은 듯하다. 왜란 어간에 두 번이나 이곳에 관찰사로 부임한 것으로 파악되는데, 특히 공은 재임기간 중 공산성의 보수와 정비에 힘을 기울였는바, 이는 공의 문집인 서경집(西峒集)에 실린 여러 편의 시와 문을 통해서 확인 할 수 있다.

용마루 높이 성 머리에 우뚝 섰으니
견고하게 길이 길이 위대한 고을을 지키리라
소동과 놀던 적벽은 이곳의 창벽이요
유량(庾亮)이 세운 남루는 곧 공북루로다
호수와 산이 있으니 사람들 자득함이 있거니와
자연은 또 큰 강을 주어 풍류를 뛰어나게 하도다
떠가는 구름도 홀연히 비를 뿌려 시를 재촉하며
맑은 술동이 기울이며 마음껏 즐기라 하네그러

高棟新開城上頭 金湯萬古衛神州
蘇仙赤壁今蒼壁 庾亮南樓是北樓
人在湖山應自得 天教江漢擅風流
片雲忽送催詩雨 相我清樽九日遊
(西峒集, 卷二, 「拱北樓成」)

위의 시에서는 공북루를 지은 뜻이 무

엇인가를 밝혀주고 있다. 그것은 공산성, 나아가 이 고을(지방)을 지키는데 매우 유용한 존재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특히 이 고을을 가리켜 신주(神州)라고까지 일컫는 데에서는, 공주를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유근 공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다고 볼 수 있다.

공이 공북루를 지은 시기는 대체로 임인년(1602, 선조 35) 즈음으로 추정되는데, 공에게는 두 번째 관찰사로 부임하였던 기간이다. 아마도 정유년 왜군의 재침에 의해 병화로 소진되었던 것을 이때에 재건한 것이라 생각된다. 그리고 이날의 정경을 묘사하여 “공북루가 완성되자 공장이들을 모두 불러 뜰에 모아놓고, 술잔치를 베풀었다. 술자리가 무르익자 서로 다투어 일어나 춤을 추었는데, 마침 비가 내렸다(拱北樓成 招工匠咸集于庭 饋之以酒 酒闌爭起舞 是日適有雨)”라고 하였다. 이를 보면 백성들도 관찰사와 뜻을 같이 하여 힘든 노역에 흔쾌히 동참한 듯하다.

이어서 공은 산성 안에 쌍수영(雙樹營) 건물도 지은 듯, “공산 쌍수영이 완공되지 못하여 민가에 묵고 있는데



흰 오리들이 앞 냇물에서 자맥질하기
에 재미삼아 시를 짓는다(公山雙樹未成
寓閭家 白鴨前溪出沒戲書)”하며 다음과
같은 시를 남기고 있다.

오리는 거위의 종류인데
천연의 흰색이 특이 하구나
가까이 이들이 살고 있는데
가는 빗 속 푸른 물에 떠있구나
여유 즐길이 마치 나 인양 하여
순수한 마음으로 그대들을 바라볼 뿐
세상사 초연하고픈 평소의 뜻은
한번 웃어짓히고 시를 짓는다네

鴨是鵞之亞 天然白者奇
隣居有此物 微雨泛清漪
得意如吾有 忘機任爾爲
平生鷗鷺約 一笑獨題詩

(西峒集, 卷一, 「公山雙樹營」)

공은 또 공산성 북문을 짓고자 하여
공사를 시작하였으나 채 완공을 보지
못하고 이임하게 되었는데, 이때 남긴
시는 아래와 같다.

한 조각 공산성 금강 가에 우뚝 서니
호서를 제압하는 요해처가 이 곳이로다.
별인 일 반도 못하고 몸이 먼저 떠나는데
그래도 높다랗게 백척 누가 되었구나

一片公山錦水頭 湖西控扼此咽喉
經營未半身先去 尙有巍然百尺樓

(西峒集, 卷一, 「公山北城」)

공산성에는 옛적에 북문이 없었는데,
이때 공이 새롭게 이 문을 세우고, 여
기에 포루(砲樓)를 설치하여 강로(江
路)에 통하도록 하였는데, 완공하지 못
하고 내직으로 옮겨 가게 되었다 한다.

또한 공은 위의 시 외에 문(文)도 두
편을 남기고 있는데, 그 하나는 상량문
이다. 곧 앞서 시에서도 언급한 쌍수영
청사를 세울 때 지어 올린 상량문으로
서 그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험난한 곳을 설치하여 나라를 굳건히 하는
것은, 어떤 나라이든 마땅히 우선하는 것이
다. 성을 쌓아서 백성을 지키는 것이니, 백성
을 다스리는 자가 어찌 뒤로 미룰 수 있으랴.
… 2천석을 받는 관직에서는 지방 감사가 가
장 존귀한 존재요, 네 곳의 진관을 둔 이 지방
에서는 공산성이 가장 큰 곳이로다. … 이 곳
은 절도사가 주둔하는 곳이니 깃 발 세워 지
휘하는 청사가 없을 소냐. … 전날 임진왜란
때는 다행히 불탐을 면했는데, 정유재란에서
는 모두 불타 온전한 기와조각조차 남지 않았
도다. 난리를 겪은 뒤로는 모두가 안일과 재
물만 탐하게 되었나니, 지금에 흑시라도 소홀
히 하면 마침내 어느 곳에 의탁 할 수 있으랴.

성을 버리면서 살기를 꾀한다면 지금 혹은



심거리가 있으랴 만은 성이 없이 터전을 지킨다는 것은 예로부터 듣지 못했노라. 앞드러 비읍건대 상량한 뒤론 백성들이 편안히 살 수 있도록 천지신명께서도 임하여 도와주소서.

(設險而固國 有國之所當先 築城爲保民 臨民者安敢後 二千石之秩 牧伯最尊 四鎮管之州 公山尤大 是爲駐節之地 가무건아 지당 석재용사 행면회신 급지정유지전 無復片瓦之全 禍亂之餘 玩愒猶甚 卽今倘或少忽 畢境何所爲歸 棄城圖存 今或有斯患 無城能守 古亦未之聞 伏願上梁之後 民生奠居 神物來相, 「公山城雙樹營廳屋上梁文」, 西峒집, 卷五)

위 글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은 임진·정유 왜란으로 인해 황폐된 곳을 재건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참혹한 전란을 겪었기 때문에 제반 물자가 부족하였고, 여기에 백성들마저 의욕이 저하되어 있었을 것이다. 「난리를 겪은 뒤로 안일과 재물을 탐함이 심하다」는 언급이 이를 말해주고 있다. 이 때 공은 이곳 공주의 공산성이 나라의 한 방면을 지키는 요해처가 됨을 역설하여(壯哉方隅之控扼), 백성들을 깨우치면서 힘을 모아 이같이 큰 공역(工役)을 추진하였던 것임을 알 수 있다.

또 한편의 글은 충청도 수령과 선비들에게 서적 출판에 권유하는 통문(通

諭忠清道令及士人謨梓書籍文)이다.

나라를 편안히 함은 실로 백성의 편안함으로부터 비롯되니, 세금 거두기를 어찌 감히 급하게 하랴. 군사력을 갖추는 것도 반드시 문화적인 사업이 바탕이 되는 것이니 문헌과 서적이 없어서는 안 된다. 글이란 도를 깨는 도구이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는 시경·서경·역경·춘추 등이다. 부모에게 효도하고 임금에게 충성하며 윗사람을 친애하고 상사의 명에 따라 죽음도 바치는 의리가 여기에 들어 있으며, 몸을 세워 이름을 날리고 집안을 이끌며 세상에 나와 행동하는 방법이 이것에 모두 갖추어져 있다. (그러므로) 이것(서적)이 없다면 답장을 맞대고 있는 것과 다름없으니, 의미 있는 일을 하려는 사람이 어찌 서적을 폐하고서 보지 않을 수 있으랴. 슬프도다! 임진왜란에 서적이 모두 불타 버린 나머지 인재들이 글 읽는 소리가 없어져 적막하게 되었도다. 급한 것은 실로 방패와 창을 갈고 닦아서 침략한 도적의 무리를 무찌르는 것이지만, 그 핵심은 의리를 먼저 밝히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선량하게 함에 있는 것이다. 진실로 인심 중에 모두 들어 있는 순수한 성품을 분발케 한다면 침략한 도적의 무리를 깨끗이 쓸어버리지 못 할까 근심할 것이 없다. 그러므로 책을 발간하는 이 한 가지 사업은 마땅히 무기를 정비하는 일과 함께 해 나가야 되니…… 힘 쓸지어다 모든 군자들이여, 나의 못난 정성을 헤아려 이 글을 보면 속



히 전하며 함께 힘을 모아 서로 도와주기 바라노라. 그 나머지 경전도 차례로 발간하여 충청도 전체를 문헌의 고장으로 바꾼시다.

(邦寧實自民安 徵斂安敢急 武備必資文事 載籍不可無 文者貫道之器 最大詩書易春秋 孝父忠君親上死長之義載於斯 立身揚名居家行世之道具於是 無是則與面牆不異 有爲者何嘗廢書不觀痛矣龍蛇灰燼之餘 寂然青莪絃誦之響 所急者固在於載修干矛而殺寇賊 其要則不出乎先明義理而淑人心 苟能激礪人心所同之天 不患蕩平寇賊之無其日 故茲刊板之一舉 宜與繕甲而竝行 勸諸君子 諒我愚誠 幸見書而 亟通 共出力而相助 其餘經傳 次第經營 變一道爲文獻之鄉 西峒集, 卷五, 「通諭忠清道守令及士人謨梓書籍文」)

위 글은 공의 문치주의(文治主義) 의식의 일단을 보여주고 있으나, 앞에서 살핀 여러 편의 시(詩)에서 보듯 공산성의 정비 복구에 진력한 것과, 또 이 글에서도 무기의 정비와 서적의 발

간을 병행해야 한다고 한 것 등에서는 공이 꽤 균형적인 사고를 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아울러 실무에 밝으며 추진력을 갖춘 유능한 목민관이었음을 알 수 있다.

지은이 유근(柳根, 1549 ~ 1627)공은 이황의 문인이며 호는 서경(西峒)이다. 사마시를 거쳐 1572년 별시문과에 장원하여 관직에 나아갔으며, 사가독서하고 이조정랑으로서 문신 정시에도 장원하여 문명을 드러냈다. 도승지, 한성부 판윤, 경기관찰사, 예조판서, 대제학, 좌찬성등을 역임하였으며 1604년 호성공신 진성부원군에 봉해졌다. 정묘호란때에 왕을 호종하다가 죽었으며 시호는 문정(文靖)이다. 특히 공은 병신년(1596, 선조29)과 임인년(1602, 선조 35)등 두 차례에 걸쳐 충청도 관찰사로 부임하였으니 공산지(公山誌, 1859, 전4, 「營門先生案」)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지금은 보수와 진보가 서로 손잡을 때

2007년도부터 공주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봉사단체를 찾아,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을 소개하고 널리 알려서 독자들에게도 봉사정신을 고취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이 난을 만들었습니다. 이번 호에는 “한국 자유총연맹 공주지부”를 찾았습니다.

현재 @@명의 가입회원과, 활발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단체-자유총연맹 공주지부를 이끌고 나가는 유영호 회장을 뵈었습니다.

김춘원 명예기자 :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유영호 지부장 :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께서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김: 먼저 자유총연맹은 언제, 어떤 목적으로 창립되었습니까?

유: 1954년 6월 15일 아시아 민족 반공연맹으로 출범하여 2004년 창립 50주년을 보낸 우리나라 유일의 이념운동 단체입니다. 이제 52주년을 맞이하게 되는 거지요. 창립 목적은 자유민주주의 수호활동과 국민 안보의식 고취, 그리고 자유 민주주의 가치창달과 건강사회 구현을 위한 이미지 제고 등 넓은 의미의 자유 민주주의 수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 민주주의를 한마디로 대변하는 그런 단체군요. 21세기를 지나면서 새로운 세기의 화두는 ‘변화’라고 합니다. 변화를 외면하거나 거부하는 조직은 더 이상 살아남을 수 없는 것이 시대적 대세입니다. 자유총연맹은 어떤 변화를 계획하고 계십니까?

유: 21세기는 다양성을 추구하지 않으면 제도이든, 문화이든 지켜내기 어렵습니다. 더구나 변화를 외면한 채 구습을 지키려고만 하면 변화에 앞선 시민단체나 디지털 파워에 밀려나게 됩니다. 사회를 변화시키는 힘은 강제적 동원에서 나오지 않고, 자발적 의사에서 나옵니다

지금 우리사회에서 요구하는 변화는 산술적으로 적당히



섞여지는 것이 아니라 21세기 시대정신에 맞는 가치 구현을 위해 서로를 포용하는 가운데 단합을 이루는 것 입니다.

김: 실로 서로를 포용하고 이해한다면 어떤 문제도 해결되고, 풀려 나갈 텐데요, 모두 그런 노력을 해야한다고 생각되네요.

그러면 회장님께서 ‘개혁적’ 보수는 어떤 가치이며 이를 좀더 친근하게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일상의 이념운동으로 가져갈 아이디어는 없으신지요?

유: 지금은 보수와 진보가 손을 잡고 서로가 협력의 상태를 한 차원 높이는 사고와 교류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개혁적인 보수 연맹이 실시하는 각종 교육과 홍보, 자유민주주의 이념 확산을 위한 문화, 이벤트, 봉사의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 자유총연맹이 국민으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 위해선 향후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유: 연맹의 소임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키는 것입니다. 교육 홍보 등을 통해 자유민주주의가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라는 것, 그 가치를 지키고 더 깊게 뿌리 내리도록 하는데 목표를 두어야 하고, 그런 토양을 만드는 것이 선결문제라고 판단하며, 세대, 빈부, 계층간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국민운동도 전개하면서 사회 소외 계층과,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공동체 구성원 속에 함께 하면서 국민과 함께 하는 다양한 의견을 수용하여 사회변화를 주도해 나가야 합니다.

김: 참으로 자유총연맹에서 하고자 하는 일들이 대단하군요. 그런 일들이 잘 정착되고 습관화되어서 국가를 강하게 하는 데 보탬이 되어야 할텐데요. 하시고자 하는 사업들을 소개해 주세요. 주요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유: 위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자유민주주의 수호활동이



중점사업이고, 민주시민 함양을 위한 민주시민 교육,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한 평화통일 국민운동, 유엔 NGO 및 국제교류협력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 교류 사업으로 글로벌 리더 자원행사, 인권신장, 사회불평등 개선사업, 의료, 노인관련사업, 평화운동 사업, UN 정신을 알리고, 연구활동 즉 연구 및 저술활동, 이념 연구 및 각종시사 현안 문제에 대한 연맹의 입장을 대내외에 천명하는 사업, 범국민운동으로서 국민 안전의식 고취, 열린 마음·열린 사회 건설을 위한 캠페인 전개, 안보관련 범국민대회 개최 및 적극 참가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지구촌 재난 구조단 발대식과 소년소녀 가장 돕기, 독거노인 살피기, 외국인근로자 인권 보호운동, 새터민 정착을 위한 보조 활동 등 청년과 여성들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 많은 일들을 활발히 하고 계시군요. 이런 질문 드려도 괜찮을런지요? 매년 반복되는 사업에서 탈피하여 좀 더 참신하고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사업을 통해 국민에게 친근하게 다가 갈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면요?

유: 네! 1989년 탈냉전이라는 시대에 발맞추어 한국자유총연맹으로 재출범하면서 극좌를 반대하는 것 같이 극우도 반대한다고 천명했습니다. 반공과 안보를 통한 체제 수호 속에서 국민통합과 민주공동체의 건설·시민운동 등 다양한 분야로 지평을 넓혔습니다. 한 예로 2004년 6월16일 출범한 어머니 포순이 봉사단이 청소년 보호와 준법, 범죄대상, 환경감시, 성폭력 예방 및 선도, 많은 자원봉사 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사회가 미처 돌보지 못한 그늘진 곳, 소외된 곳을 감싸안고 따뜻하게 돌보는 중요한 사회 안전망도 구축했습니다.

김: UN NGO 활동 중 국제교류 협력활동이 활발한 것으



로 아는데 설명이 필요하다면요?

유: 2002년 7월 23일 유엔경제사회 이사회에서 특별섭외 지위 NGO 자격획득 하였고, 지속 가능한 국가발전을 위한 사업을 전개하는 부담도 지게 되었습니다. 즉 빈곤과 기아 해소, 질병퇴치, 아동 환경보호 등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김: 회장님! 끝으로 지난 52년을 평가하고, 앞으로 반세기를 조망하는 이정표가 있다면요?

유: 한 시대를 정리하고 넘어간다는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새로운 미래를 준비한다는 차원에서 그 의미를 가져야 합니다. 자유총연맹 52년은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이념 대결에서 승리한 자랑스러운 국가창조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개혁적 보수를 지향하며 국민 통합, 더불어 사는 사회 만들기 앞장서고 있는 자유총연맹 활동에 지극한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김: 끝으로 충남통일관을 유치 건립하셨다는데, 한 말씀 주시지요.

유: 지난 2004년도부터 총액 10억2천만원 예산지원으로 공주시 봉황산 자락인 웅진동에 건립하였고, 2006년 총연맹 통일부 예산확보 2억원 및 기타자료를 지원 받아서, 개원 일지만 남기고 있습니다. 지하층은 자료보관실, 1층엔 전시실, 2층엔 영상교육실(안보 교육장) 3층엔 사무실로 아담하고 내실을 기한 사무실입니다. 많은 이용과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김: 장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유총연맹에서 계획하고, 원하는 모든 사업들이 다 이루어지시고, 모든 회원들께도 더욱 열심히 하시라는 박수를 보내 드립니다. 회장님 정말로 애쓰셨습니다.

명예기자 김춘원

市와 의회는 ‘감시와 대립이 아닌 상생관계’

제5대 시의회 선장

이동섭 공주시의회 의장



이동섭 공주시의회 의장은 “올해 공주시는 전진하느냐, 퇴보하느냐 하는 중차대한 기로에 있다. 지역 현안을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해 올해 시의원 모두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13만 시민들의 뜻을 반영시키고 지역발전의 선봉장이 되겠다”고 정해년 새해 소감을 밝혔다.



지난 해 '행복한 공주, 행복한 시민'이라는 기치를 걸고 7월10일 제5대 공주시의회가 개원한 이후 이동섭 의장은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만큼 바쁜 일정을 보냈다.

외적으로는 행정도시와 도청 이전 문제로, 지역에서는 시민의 생존권이 걸린 공주대 교명 변경 저지 시민운동 등 풀어야 할 굵직한 현안문제와 내부적으로는 공주밤 홍보, 행정사무감사 등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제5대 공주시의회가 출범한 이래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행정사무감사 모습이다. 먼저 자료 요구량에서 지난해 221건보다 222% 증가한 491건으로 의원 1인당 평균 41건을 질의한 것으로 이는 의회 개원 이래 최대 규모다. 또, 격주 수요일에 하던 수요간담회를 매주 월요일 의원총회로 정례화하면서 의회와 집행기관의 상생 발전하는 협력자로 바뀌고 있다.





그동안 제5대 의회 개원 이후 활동상을 살펴보면 △ 임시회·정례회 개최로 조례안·규칙안·일반안 등 안건 처리 △주요사업장 등 현장방문으로 민생형안을 살폈다. 또 농민을 위한 지역특산물 홍보를 위해 서울 등지로 발벗고 나섰다. 실제 지난해 9월 공주알밤 홍보를 위해 서울 롯데월드 공연장에서 알밤축제를 개최해 전국적으로 공주알밤을 알렸다. 특히 지난해 시민의 생존권이 걸린 공주대교명변경 및 본부이전과 관련하여 반대성명서를 발표하는 한편 이 의장과 의원들이 공주대 총장을 방문, 시민의 뜻을 전한바 있으며 시민의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청와대와 국회에 반대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 의장은 “의회에서 하는 일은 첫째 예산을 균등하게 배분하는 것”이라며 “공주시에서 추진 중인 금강물막이 사업과 유구천·정안천·제민천 환경사업, 그리고 5도 2村 사업 등, 타당성있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장은 또 “두번째는 市와 의회는 감시와 견제의 대립이 아닌 市 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한 상생하는 관계”라면서 이를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며 신년 포부를 밝혔다.

신용희 명예기자

公州의 땅이름 이야기 (3)



장길수

— 봉황중학교 교장
— 공주향토문화연구회원

풍수와 땅이름(2)

형국론(形局論)과 땅이름

풍수의 여러 이론 중에 형국론(形局論)이란 이론이 있다.

형국론이란 산 또는 지형의 형세를 판단하는 이론이다. 형국론에서는 지형의 형세를 보다 쉽게 알아보기 위해 지형의 형세를 짐승을 비롯한 여러 가지 물체에 빗대어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 분명치 못한 산천형세를 사람, 물체, 날짐승, 들짐승, 뱀무리 등의 형상에 유추하여 판단하면 비교적 쉽게 지세 개관과 길흉을 떠올릴 수 있다는 논리이다.

지세가 용머리를 닮았다거나 소가 누워있는 형상이라는 주장이 형국론이다. 그 '용머리' 또는 '누워있는 소'가 땅이름으로 굳어지기도 한다.

형국론은 풍수의 이론 중에서도 땅이름 형성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그 예로 몇 가지 땅이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용두동(龍頭洞) : 용의 머리 형상
- 와우동(臥牛洞) : 소가 누워 있는 형국(形局)
- 비봉면(飛鳳面) : 봉황이 나르는 형상
- 호미곶(虎尾串) : 호랑이 꼬리 형상(포항시)



맹호형국론

1. 용(龍)과 땅이름

▶ 간룡법(看龍法)과 땅이름

풍수의 구성요소는 산, 물, 방위를 주요 요소로 꼽는다. 풍수에서는 산(山)을 용(龍)이라 부른다. 즉 산을 살

아 꿈틀대는 용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산을 보는 방법을 간룡법(看龍法)이라 한다. 산이 많은 우리나라는 용과 관련 있는 땅이름이 전국 도처에 무수히 많이 나타나고 있다. 용산(龍山), 용두동(龍頭洞) 등이 대표적이다.

- 용산(우성면 옥성리, 신평면 용수리 용산 + 수산)
- 용머리(=용두리, 용두동, 용두산, 용두천 : 의당면 용현리)
- 용고개(龍峴里 : 의당면)
- 용터(=용대리 : 의당면 용현리)
- 용바위(용암, 용암리 : 의당면 용암리, 우성면 용봉리, 장기면 당암리)
- 용굴(금학동)

▶ 계룡산(鷄龍山 : 공주시 계룡면)

계룡산은 계림산·계악·중악 등 여러 이름으로 불리어 왔으며, 산세와 관련하여 붙여진 이름도 계룡산을 비롯하여 구룡산(九龍山)·용산(龍山) 등 용과 관련된 지명으로 불리어 왔다.

그 중 용과 관련된 대표적인 이름인 계룡산(鷄龍山)의 유래에는 여러 가지의 설이 있다. 상봉~쌀개봉~연천봉~삼불봉으로 이어지는 능선의 모습이 닭(鷄)의 벃을 쓰고 있는 龍의 모습을 닮았다고 하여 계룡(鷄龍)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는 설과, 무학대사가 새로운 도읍을 정하기 위해 태조 이성계와 함께 이 곳에 와서 지세를 살피고는 “이 산은 한편으로는 금계포란형(金鷄抱卵形)이요, 또 한편으로는 비룡승천

형(飛龍昇天形)이니 두 주체를 따서 계룡이라 부르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한 데서 그 이름이 유래했다는 설이 있다.



계룡저수지에서 본 계룡산(촬영 : 2006.11.25)

이외에도 계룡산에는 용과 관련된 땅 이름이 많이 있다.

갑사에서 금잔디 고개에 이르는 구간에 갑사구곡이란 계곡이 있다. 이 계곡에 용과 관련 있는 용문(龍門)폭포가 있다. 용문이란 용이 드나드는 문이라는 뜻이다.

계룡산 천왕봉 남쪽 골짜기에는 암용추와 솟용추란 명소가 있다. 용추(龍湫)란 폭포가 떨어지는 바로 밑에 있는 웅덩이로 용소(龍沼)라고도 한다.

▶ 오룡쟁주형(五龍爭珠形)과 오룡리

오룡쟁주형은 다섯 마리 용이 구슬을 다투는 모양의 지형이다.

용이 승천(昇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의주를 물어야 한다. 때문에 이 여의주를 다투는 과정에서 지기(地氣)가 발동하는 쟁주형(爭珠形)은 대표적인 명당으로 꼽힌다.

이와 관련된 땅이름으로 대표적인 곳이 이인면 오룡리이다. 그 외에 의당면 요룡리, 반포면 원봉리에도 오룡골 또는 오룡동이 있다.

▶ 와룡형(臥龍形)과 와룡리

와룡형은 용이 누워있는 형국의 명당 자리로 도처에 와룡리라는 땅이름을 남기고 있다.

◎ 와룡리 : 의당면 청룡리, 장기면 은룡리 탄천면 와룡리(구례실) 등

▶ 복룡형(伏龍形)과 복룡리

용이 엎드려 있는 모양을 복룡형(伏龍形)이라 한다. 이 또한 명당 자리로 도처에 많은 땅이름을 남기고 있다.

◎ 복룡리 : 탄천면 복룡리, 정안면 상룡리, 정안면 복룡산 등

▶ 반룡형(盤龍形)과 땅이름

반룡형은 용이 서리어 있는 형국으로 반포면 마암리의 반룡골, 반룡산 등을 들 수 있다.

▶ 용과 물과 땅이름

농업국가였던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용을 물의 신(神)으로 숭상했다. 가뭄이 계속될 때는 용정(龍井), 용호(龍湖), 용지(龍池), 용추(龍湫), 용담(龍潭), 용소(龍沼) 등에서 기우제를 지냈다. 어민들은 바다의 신인 용신(龍神)에게 풍어와 안전을 기원하며 용왕제나 용왕맞이 등을 지냈다. 따라서 땅이

름에도 용과 관련있는 곳이 많다. 땅이름의 변화 과정에서 다른 땅이름과 결합되어 형성된 것이 많다.

◎ 용추(계룡산의 암용추, 솟용추)

◎ 용수골(=용수리, 용수동 : 유구읍 문금리, 사곡면 油龍里 油峙 + 龍水洞)

◎ 용못(용지: 우성면 옥성리, 신평면 백룡리)

◎ 용못(용소 용소골 : 김상동, 의당면 덕학리)

◎ 용강(신평면 대룡리 대랑리+용강리)

◎ 용계(신평면 백룡리 백세동+용계리)

◎ 용골(용곡, 용곡리 : 탄천면 신영리)

◎ 용샘(용정 : 탄천면 장선리)

▶ 기타 용 관련 땅이름

의당면에는 청룡리(靑龍里)가 있다. 청룡리는 풍수보다는 행정구역의 통폐합으로 새롭게 만들어진 땅이름이다. 즉 세청리, 와룡리, 수촌, 유계리 등이 병합하여 세청과 와룡(臥龍)의 이름을 조합하여 새롭게 명명한 것이다. 이와 같은 예는 장기면 은룡리(노은리+와룡리), 신평면의 대룡리(대랑리+용강리), 백룡리(백세동+용계리) 등을 들 수 있다. 옥룡동(玉龍洞)은 옥녀봉(공산성 동쪽 산)과 용못(대전·논산 삼거리 주유소 서쪽)에서 따온 땅이름이다.

2. 와우형(臥牛形)과 땅이름

와우형(臥牛形)은 ‘소가 누워 있는 형상의 명당’으로 소가 옆으로 누워서

한가로이 되새김질을 하는 것처럼 자
자손손 누워서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좋은 명당으로 꼽는다. 부자가 되기는
하지만 자손 수는 적다고 한다.

땅이름에도 많이 나타나는데 공주 지역
의 와우형과 관련된 땅이름은 다음과
같다.

와우산(臥牛山 : 계룡면 경천리)

경천 뒤에 있는 산. 모양이 소가 누
워 있는 형국이라 함.

우와리(牛臥里 : 계룡면 기산리)

뒷산이 누운 소 모양이라 소와리 또
는 우와리라 한다. 보통은 와우(臥牛)
라고 부르는데 이 곳은 특이하게 우와
(牛臥)로 불린다. 동네 앞으로 우와교
(牛臥橋)가 있다.

소미(=牛山 : 장기면 봉안리)

소진-골(=牛鎭 : 장기면 금암리)

숫골(=소골 : 장기면 당산리)

3. 금계포란형(金鷄抱卵形)과 땅이름

금계는 천계(天鷄)라 하는데 이 닭이
새벽을 알린 후에 지상의 닭이 따라서
운다고 한다. 그래서 금계형은 좋은 자
리로 꼽힌다. 그리고 닭은 한번에 많은
병아리를 부화시키기 때문에 자손이
번성할 길지로 불린다.

금계포란형과 관련된 대표적인 땅이
름으로는 다음과 같다.

계봉(鷄峯, 계봉리 : 사곡면 화월리,
유구읍 추계리)

쌍계(雙鷄, 쌍계리 : 탄천면 복룡리)

〈금계포란형의 금계산과 문극점 묘소



유구읍 추계리(촬영 : 2006.11.13)

4. 복호형(伏虎形)과 땅이름

호랑이가 엎드려 있는 산형을 복호형
또는 복호혈(伏虎穴)이라 한다. 복호혈
은 호랑이가 사냥감을 잡으려고 땅에
엎드려있는 형국으로 그 앞에 개나 사
슴 같은 바위나 작은 산이 있어야 좋
은 자리이다. 먹이감이 없을 때에는 비
보책으로 먹이에 해당되는 개나 사슴
등의 조각을 들판에 세우거나 축사를
지어 놓기도 한다.

복호형과 관련된 공주의 땅이름은 다
음과 같다.

범재(=호현, 범재들 사곡면 호계리)

범덕골(=호덕동 우성면 용봉리)

범말(=호촌 계룡면 향지리)

|향토사료|

공주 근대교육의 효시(2)



이 일 주

공주대학교 교수
공주고, 사범대학 졸업
동국대 대학원 졸업
저서 “현대교육의 원리”

4. 영명학교

‘명설학교’가 ‘중흥학교’로 개칭된 지 약 3년이 지난 1909년(융희3년) 7월 26일¹⁾에 교명을 ‘영명(永明)학교’라 개칭하고 심상(尋常), 고등(高等) 양과를 병치(並置)하여 지령(指令) 학일수(學一受) 제953호로 학부대신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았다(사진 3)²⁾.

초대 교장을 맡은 우리암 교장은 ‘영명’이라는 이름을 ‘Eternal Brightness’라고 하여 ‘영원한 광명’이라고 뜻을 풀이하였다. 영명의 ‘영(永)’은 한자 뜻으로 ‘오래되고 긴 것’을 의미하지만 영명학교에서는 기독교인들이 희구하는 ‘영생(永生)’에서 가져온 것이라고 한다.

‘명(明)’은 한자 뜻으로 ‘밝음’과 ‘분별함(辨)’과 ‘총명함(聰)’을 의미하지만 영명학교에서는 ‘창세기’의 빛 즉 광명(光明)을 뜻하는 한편 공주 지방을 문명(文明)시켜야 한다는 뜻이라고 한다.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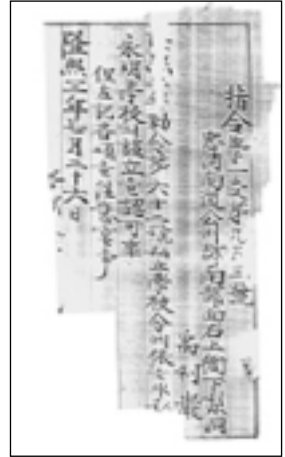
‘영명학교’는 인가 초기부터 학교상황이 점점 발전하여 학생수가 증가하는데 교실은 협소하므로 1910년에 부근에 있던 6칸 초가를 사들여 유치(幼稚)반을 이설(移設)하였는데(그 동안에는 공주지역 유치원의 효시는 충청지역에서 최초로

1) 1916년(대정5년)에 기록된 사립영명학교상황일람에는 1909. 6. 26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인가서의 월을 잘 못 표기한 것으로 추정됨.

2) 2002 철거 건물 출토자료인 ‘사립영명학교 졸업생 명부’, p.19.

3) 영명중·고등학교, 상계서, pp.106-107.

영명학교 인가서



1912년 9월에 설립된 ‘공주유치원’이라고 알고 있었다.⁴⁾ 그 부지가 협소하여 그 부근 대지 1좌(座)를 매입하고 1912. 8. 26 조선총독의 승인을 받아 보통, 고등 양과를 설치 운영하였다. 그 이후에도 교사(校舍)가 협소하여 1914. 9. 15에 고등과는 대화정 남쪽 언덕 위에 3층 양옥으로 옮기고 보통과는 군 관아(官衙; 현재 공주의료원 부근) 뒤편 고등과 교실로, 기숙사는 보통과 교실로 이설하였다.

1916년(대정5년)에 기록된 ‘사립영명학교상황일람’과 1921년 6월 15일 작성된 ‘사립영명학교 졸업생 명부’의 내용을 중심으로 당시 영명학교의 교육상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학교명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1909년 학부대신으로부터 인가받은 학교명은 ‘영명학교’ 이었는데, 한일합방(1910년) 후 ‘사립영명학교 졸업생 명부’에 합철된 학칙에 의하면 1921년의 학교명은 ‘사립영명고등학교’이었다.

2) 교육목적 및 수업연한

초기 영명고등학교의 교육목적은 ‘고등보통지식과 기독교덕목을 양성’하는 것이었으며,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하였다.

3) 학년 및 학기제

학년은 4월1일에 시작하여 다음해 3월 31일 종료하며, 1년을 3개 학기(1학기: 4. 1~8. 31, 2학기: 9. 1~12. 31, 3학기: 다음해 1. 1~3. 31)로 나누어 운영하였다.

4) 입학, 퇴학 및 상벌

입학은 매 학년 제1학기 초로 정하며, 입학자격은 학령 12세 이상의 남자로 수업 연한 4개년의 보통학교를 졸업한자 또는 이와 동등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신체 검사 및 품행고사를 행한 후 국어(1921년 당시는 일본어를 칭함), 조선어 및 한문, 산술의 학과목의 시험에 합격한 자로 하였으며, 이 밖에도 품행이 방정하고 신체가 건전하여 학자(學資)의 공급에 부족함이 없어 본교 교과를 수료할 만한 자에게도 입학자격을 주었다. 한편 당시에는 제2, 3학년에도 입학할 수가 있었는데, 이

4) 이일주, ‘교육’, 公州市誌 下卷, 공주시지편찬위원회, 2002. p.185.

때는 신체검사 및 품행고사 후 전(前)학년의 과목을 시험하여 이에 합격한 자로 하였다. 또한 이때는 학력이 우등하고 품행이 방정하여 일반 학생들에게 모범이 될 만한 학생에게는 표창을 하였고, 이와 반대로 훈육 상 필요성이 인정될 때는 견책과 정학의 징계를 주도록 하였고, 성행이 불량하여 개선의 소망이 없는 자 등 4개 호의 하나에 해당될 때는 퇴학을 명할 수 있게 하였다.

5) 교육과정

한일합방 직후 사립영명학교 때의 교과과정(팔호안의 숫자는 주당 시수임)은 수신(修身, 3), 국어(일본어, 8), 조선어와 한문(4), 역사와 지리(2), 수학(4), 이과(3) 등의 과목으로 하였으며⁵⁾, 교명이 사립영명고등학교로 변경된 후의 1921년의 교과과정은 수신(3), 국어(일본어, 7), 조선어와 한문(3), 외국어(영어, 5), 역사(2), 지리(2), 수학(4), 박물(4) 등으로 하였다.

6) 교직원

사립영명학교상황일람(1916)에는 사립영명학교에 재직 중이었거나 퇴직한 교원의 성명, 임명 연월일, 봉급액, 학력, 담당학과목 등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당시 재직 중이었던 교장은 우리암, 교감은 도상규, 교사는 김관희, 현기동, 김종현, 上向井義道(일본인)가 재직하였다.

이 때의 교원 명부에는 퇴직교원으로 황인식이 기록되어 있는데, 황인식은 1908년 12월 영명학교를 제1회로 졸업하고(중학교 과정), 곧 이어 모교의 교원으로 재직한 후 1913년에 퇴직하였다.

7) 수업료

1921년의 수업료는 1개월에 금(金) 1원 50전으로 하되 매월 5일내로 납부하도록 하였다.

8) 학교경비

중흥학교 시절인 1907년부터 사립영명학교로 인가를 받은 사립영명학교 때는 전적으로 선교회보조금에 의해 학교를 운영하였다(1907년: 360원, 1908년: 370원, 1909: 400원). 그러다가 1910년부터는 본교회 기부금, 학생수업료, 선교회보조금, 신입생 입학금 등으로 수입과목이 늘어나서 총 수입금이 1910년에는 1062.87원,

5) 사립영명학교상황일람(1916)

1911년에는 1146.90원, 1912년에는 1278.33원, 1914년에는 1415.40원으로 계속해서 증액되었다.

수입금 중 학생 수업료는 고작 60.15원(1913년)~141.43원(1912년)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당시의 학생수가 많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나마도 학생들의 형편이 매우 어려웠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지출항목으로는 봉급, 잡급, 잡비, 서적비, 석유비, 수선비, 기숙비 등으로 구분하였는데, 1910년에는 1057.805원, 1911년에는 1140.65원, 1912년에는 1229.21원, 1913년에는 1293.46원, 1914년에는 1516원, 1915년에는 1755.88원이 지출되었다. 계속되는 재정부족으로 인하여 1916년에는 보통과를 폐지하고 학생들을 공립학교로 보냈다.⁶⁾



교원명부(1916)

9) 교가

사립영명학교상황일람(1916)의 pp.9~10에는 초기 영명학교의 교가가 수록되어 있다. 가사 뿐만이 아니라 악보까지 그대로 수록되어 있어 당시의 영명학교가 지향하는 교육의 이념과 방향 및 교육정서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누가 언제 어떠한 연유로 작사, 작곡했는지가 밝혀져 있지 않고, 또한 당시의 인쇄상태가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궤석에 보관되었던 세월(81년)이 경과되어 몇몇 글자는 알아 볼 수가 없지만 여기에 가사만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당시의 문체를 지금의 문체로 필자가 바꾸어 표기함).

- 1절 금강수 깊은 물 영세토록 흘러서 백물을 소장코 공주산성 명승처는 인걸지성이로다. 백옥도 좇지 않으면 그릇일 수 없고 영웅도 학(學)지 못하면 성업할 수 없네 ○○○○생각하여라.
- 2절 세월은 무정히 가면서 청년의 호시를 불게하나 영웅도락 능력있어 치세 능히 만든다. 시호 시호 부○○라 촌음○경하여 내가 할일 내가 하고 목적 잃지 마라 ○○○○생각하여라.
- 3절 인생이 한평생 살 동안 안락이 좋기는 할지나?안집독 누가 알나 수고 생각말어라 한 때 수고 없는 영웅 예전부터 없고 공부없는 무장서사 천지간에 뉘까 고딘 락의 근본이로 세(후렴) 어히라 우리 청년학생아 내가 할일 내가 하여 ○○영명영명 우리 학교 만세만세 부르세

6) 이 당시 영명학교 바로 아래에 1906년에 설립된 공립공주보통학교가 있었으므로 이 학교로 진출시켰을 것으로 보임.

10) 재학생

초기 영명학교에 재학하였던 학생명단이나 통계자료는 알 수가 없다. 다만 1921년의 사립영명고등학교 학생명부는 2002년에 궤석에서 나온 사립영명학교졸업생명부에 함께 수록되어 있는데, 이에 의하면 1921년에 안석중(安錫仲) 등 51명이 재학하고 있었다.

11) 학부모 직업

영명학교 초기(1906~1910)의 학부모들의 직업은 알 수 없으나 1911~1916의 학부모 직업별 분포는 사립영명학교상황일람(1916)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이 자료에 의하면 당시의 영명학교 학부모들의 직업은 농업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는 상업과 관공사(官公史) 및 교역자(敎役者) 순이었다.

12) 졸업생

초기 영명학교 졸업생명단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자료는 2002에 발견된 궤석에서 나온 사립영명학교상황일람과 사립영명학교 졸업생명부인데, 이들 자료에 의하면 초기 영명학교의 공식적인 졸업생은 1908년에 처음 배출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초기 영명학교의 졸업생수와 졸업생 명단을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게 해 주고 있는데, 제1회부터 제3회까지의 명단만을 밝혀보면 다음과 같다.

제1회(1908. 12) : 황인식(黃仁植), 안사영(安思永), 이종오(李鍾五)

제2회(1909. 6) : 조상백(曹上伯), 조병옥(趙炳玉), 김사현(金士賢),
진귀봉(陳貴鳳), 전희균(田羲均)

제3회(1910. 6) : 안성호(安聖鎬), 김성만(金聖萬), 박준익(朴準益),
송원돈(宋元敦), 안무성(安茂城), 이일달(李一達),
수업생(修業生) 강희병(姜羲秉)

이들 중 제1회 졸업생인 황인식은 모교에서 교사와 교장으로 재직한 한편 초대 충남도지사를 역임하였으며, 제2회 졸업생인 조병옥은 내무부장관과 민주당대표최고위원(1956) 등을 두루 역임한 한편 1960년 민주당 공천을 받아 대통령에 입후보하였으나 선거를 1개월 앞두고 타계한 민족지도자이다.

한편 제10회 졸업생 중 양재순(梁載淳)은 양두현(梁斗鉉)⁷⁾의 아들로, 영명학교를 졸업한 후 민족항일기에 공주에서 공제의원(公濟醫院)을 경영하였으며, 미군정기에는 충청남도 보사국장을 역임하기도 하였다(지수걸, 1999:381).

초기 졸업생 명부



IV. 結

이상에서 공주의 근대초기의 공주사립소학교와 영명학교사를 고찰해 보았는데, 이를 통해 이미 100주년이 지난 공주사립소학교와 금년에 100년의 학교사를 지니게 되는 영명학교의 초기 학교사를 보다 명확하게 조명하는데 다소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또한 이 글을 읽는 이들은 현재의 공주중동초등학교의 기원(起源)은 일제(日帝)의 설립인가에 의한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선각자가 행정기관의 지원을 받아 설립하였다고 하는 사실과 영명학교사는 단순히 영명학교라는 한 학교의 역사일 뿐만 아니라 우리 공주가 긍지 높은 교육도시로서의 지역정체성을 지니게 한 근대초기교육의 숨결이 아직도 영명학교에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여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그러한 뜻에서 두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그 하나는 현재 공주중동초등학교의 역사를 최초 전신인 공주사립소학교가 설립된 해에 맞추어 1898년으로 바로 잡아 주기 바란다. 또 하나는 영명학교 설립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아쉽게도 철거된 초기 영명학교 건물을 복원하는 노력을 공주와 충남지역의 기관·단체, 교회와 주민들이 함께 기울여 나아가길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 사립영명학교 상황 일람, 大正5년(1916) 10월(2002. 6. 30 출토).
 영명중·고등학교, 영명 90년사, 1997.
 윤용권, '옛 학교 건물 출토 영명학교 관련 자료에 대한 간략한 소개', 영명중·고등학교, 공주영명중고 소식 창간호, 2003. 4.
 이덕주, '한국 기독교 문화유적을 찾아서', 기독교사상, 1998. 4.
 이일주, '교육', 公州市誌 下卷, 공주시지편찬위원회, 2002.
 정혜영, '근대교육의 발전과 공주', 공주대학교 박물관 외, 공주의 역사와 문화, 1995.
 지수걸, 한국의 근대와 공주사람들, 공주문화원, 1999.

- 7) 양두현은 구한말 중추원 의관(11등급)을 역임하였으며, 1916년 영명학교 창립 10주년 모금행사의 주요기부자였음; 지수걸, 한국의 근대와 공주사람들, p. 381.
 8)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공주중동초등학교의 연혁지에 기재되어 있는 일제에 의해 설립인가 된 1906년의 '공주공립보통학교'의 앞 란에 1898년의 '공주사립소학교'를 추가하는 한편 2006년을 창설 100주년으로 알고 현재 기념행사를 준비 중에 있다고 한다면 '창설 108주년'으로 행사명을 변경하길 제언함.

공 주 의 인 물



초려 이유태 유고

초려 이 우 태 선생

(1607~1684)

의롭고 정직하게 살다간 참다운 선비

선생의 휘(諱)는 유태(惟泰)요 자(字)는 태지(泰之)이며 시(詩)는 문헌(文憲)이요, 경주인(慶州人)이니 학자(學者)들이 초려선생(草廬先生)이라 칭(稱)하였다. 선조 사십년(宣祖四十年) 정미(丁未) 구월일일(九月一日)에 탄생(誕生), 팔세(八歲) 시에 강태공(姜太公)이라는 시제(詩題)로 『낙시대 그림자 맑은 물에 비추더니 하루 아침에 왕의 스승이 되었구나』라고 했고, 십오세(十五歲) 때 읊은 시(詩)에 『중천(中天)의 흰 달래 본래 분명한데 한조각 구름에 가리워 나지 못하누나. 만약 청풍(淸風)으로 불어 파한다면 본연의 광채 다시 빛나리라 天中泰月本分明, 一片浮雲蔽不生 兒使淸風吹破了 些』精彩更光晶』이라 하였으니 그 기상(氣象)과 흉금(胸襟)을 이때부터 볼 수 있다. 십팔세(十八歲)에 사계(沙溪)에게 취학(就學)하니 사계(沙溪)는 칭허(稱許)하되 “큰 유학자이다. 오도(吾道)의 부탁이 이사람에게 있다” 대유대유오도지탁자(大儒大儒吾道之託此) “라 하였다. 이때부터 동춘 우암(同春 尤菴)과 정교(定交)하였다. 이십팔세때 학행천(學行薦)으로 건원릉참봉(建元陵參奉)에 제수되었고, 병자하성(丙子下城)후에 출세(出世)할 뜻이 없어 산중(山中)에서 강학육영(講學育英)으로 자락(自樂)하였으며 모든 관직의 임명에 일체 부임(赴任)하지 않았다. 이때 창주 김익희(滄州 金益熙)는 임금께 올린 봉사(封事)에서 선생과 동춘 송준길(同春 宋浚吉),

우암 송시열(尤菴 宋時烈)을 일대(一代)의 선사(善士)로 병천(并薦)하였고, 기천 홍명하(汽川 洪命夏)는 서연(書筵)에서 세자(후의 효종)의 진유일사(眞儒逸士)를 묻는 말에 청음 김상헌(淸陰 金尙憲), 신독재 김집(愼獨齋 金集), 이유태(李惟泰), 송시열, 송준길, 윤선거는 당대의 도학절의(道學節義)가 거룩한 인물(人物)로서 이들을 예우기용(禮遇起用)해야 사도(斯道)를 밝힐 수 있다고 대답했다. 선생이 사십세되던 을축년(乙丑年)에 효종이 즉위하여 북벌대지(北伐大志)를 실행키 위해 산림오신(山林五臣)을 별유(別諭)로 초치하니 김집, 송준길, 이유태, 송시열, 권시(權嫻)등이었다. 선생은 주상(主喪)이 큰 뜻을 품은 기회를 놓칠 수 없다하고 신독재(愼獨齋)와 함께 상경하여 며칠동안 공직(供職)했다. 이때 시배(時輩)들은 존양대의(尊大義)를 모른채 산림제현(山林諸賢)을 공척(公斥)하니 청음, 독재는 귀향의사를 결정하고 동춘과 송애(宋崖)는 자저미결(自蹟未決)하며,

尤庵은 은하향(下鄕)한 때여서 동인(同人)의 정신이 집결되지 않고 북벌대사(北伐大事)는 막연한 처지였다.

선생은 수천언(數千言)의 논사소(論事疏)를 올려 시배(時輩)를 탄핵(탄劾)하니 세상에서 이소(疎)를 부정척사(扶正斥邪)의 대문자(大文字)라 칭(稱)한다. 이로 인하여 효종은 수년간 선생을 가용치 않았고, 조정에선 동춘(同春), 창주

공 주 의 인 물

(滄洲), 기천(沂川), 시남(市南), 오재 이후원(汚齋 李厚源), 문곡 김수환(文谷 金壽桓), 노봉 민정증제현(老峯 閔鼎重諸賢)들이 변백교천(辯白交薦)하였다. 장주는 경연(經筵)에서 이유태는 학문이 고명하고 시무에 능하므로 세상사람들은 양송(兩宋)보다 높게 칭찬하였다. 동춘은 등대설화(登對說話)에서 현종(顯宗)이 당대강관(當代講官)의 제일인(第一人)을 묻자 선생 및 우암, 시남을 천(薦)하고 또한 이유태 같은 사람은 하루도 전하의 곁에 없어서는 안된다 했으며 우암은 효종과 독대(獨對)에서 선생만을 천거했고 효종은 이를 경청, 밀지(密旨)를 내렸다. 선생은 정치의 일대혁신론(一大革新論)으로서 정치, 교육경제공방등 국정전면에 걸쳐 대책을 제안하면서 그대로 시행한다면 복벌은 자재기중(自在基中)이라는 것이다. 이 봉사(封事)가 정서도중(精書途中)에 효종은 승하하고, 이 후부터 선생은 출세의사(出世意思)가 없었다.

현종초기에 동춘과 영상 정태화(領相 鄭太和), 좌상 심지원(左相 沈之源), 백헌 이경석(白軒 李景奭) 등 제현은 선생의 수용과 봉사제출을 추천하였고, 현종은 비국(備局)에 참의시행(參議施行)을 명했으나 대변혁을 요함으로 시행치 못하였다. 그러나 현종말년까지 십오년에 걸쳐 조신들과 각기관에서 선생의 예대기용과 봉사시행에 고군(告君)한 사실을 대략 열거 한다면 비국(備局), 옥당(玉堂), 희정당참의(熙政堂參議), 시강원등과 시남, 백헌, 영상 정태화, 우상 허적, 부응교 남구만(副鷹敎 南九萬)외 이십여인이었다. 현종은 예대극진(禮待極盡)하여 별유돈소십이차(別諭敦詔十二次), 제직이십이차(除職二十二次), 등대십차(登對十次), 사관전유십일차(史官傳諭十一次), 예관전유오차(禮官傳

諭五次), 도백전유삼차(道伯傳諭三次), 사식물십육차(賜食物十六次)였다. 이조참판(吏曹參判), 세자시강원찬선(世子侍講院贊善), 사헌부대사헌(司憲府大司憲) 등직에 임명되었으나 선생은 말하기를 효종과 현종은 건도곤도(乾道坤道)의 분별이 있다하였으니 두 임금 자품의 차이점을 말한 것이다. 그러므로 선생은 거관임직(居官任職)을 한 일이 없고 산림에만 있었으나 사람들은 동량(棟樑)으로 의앙(依仰)하고 조가(朝家)에선 시구(著龜)로 존경하여 국가길흉대소사에 군신상하가 모두 도움을 구했다. 만언봉사외에도 이도장소(二度長疏)와 수십차의 응지소(應旨疏), 사직소(辭職疏)가 있다. 숙종원년을미정월에 예송(禮訟)으로 인하여 일변(一邊)에서 우암과 선생의 가율(加律)을 주장하니 이때 지호 이선(芝湖 李選), 서포 김만중(西浦 金萬重)과 양호유생 정상용(兩湖儒生 鄭祥龍) 등 수백인(數百人)와 사학유생 태두(四學儒生 泰斗)등 이상소변무(上疏辯誣)하였다. 오월에 평안도 철옹산성(平安道 鐵瓮山城)으로 유배되었고 오년후인 경신(慶申)에 석방되었으며, 사년후 갑자에 칠십팔세로 공주중호(公州中湖)에서 고종(考終)하였다. 저서에는 시(時), 소(梳), 잡록(雜錄), 사서답문(四書答問), 사예활기정훈(四禮笏記庭訓), 역설(易說), 예변(禮辯), 경의문답(經義問答), 의례문답(儀禮問答), 향약(鄉約) 등 삼십오권십팔책(三十五卷十八冊)이 있다. 선생을 향사하던 곳으로는 금산의 반계서원(磻溪書院), 연기의 갈산서원(葛山書院)등이 있었고 근자에 하계에 활발한 연구와 유물의 문화재지정, 고택의 복원, 명덕사용문서원(明德詞龍門書院) 및 유물관이 공주시 상왕동 선생의 고택지에 건립 되었다.

2007년도 공주시정 설계 ‘힘찬 도전! 위대한 공주’

첫째, 「기본이 바로 선 행정」
둘째, 「성과를 지향하는 경제」
셋째, 「더불어 행복한 복지사회」
넷째, 「전통이 살아 있는 문화도시」
다섯째, 「삶을 풍요롭게 하는 환경정책」

공주시가 “시민을 찾아가고” “시민이 참여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시민 지향적 행정을 목표로 효율적인 조직기반과 시 문화상징화 로드맵을 통해 5도 2촌의 도시로 거듭나 도시민이 주말을 공주에서 보내도록 하기 위한 시책에 초점을 맞추고 기업유치, 농업관광개발, 고객만족(CS)행정 강화와 시민 체감형 혁신행정으로 대한민국 중심도시·살기 좋은 공주를 만들기 위해 정 해년 새해 문을 열었다.

현재 공주시를 에워싸고 있는 환경은 매우 긴박하게 전개되고 있다. 행복 도시의 건설, 천안·아산지역의 급속한 도시화, 대전의 서부권 개발, 도청의 홍성·예산 이전 결정 등 굵직굵직한 변화들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가 유리하게 작용할 것인가! 아니면 주위 도시들의 급속한 성장으로 인해 사방으로 찢겨나갈 것인가! 이러한 불투명한 미래 상황이 이 준원 공주시장으로서 ‘영광스럽고 위대한 공주시’를 만들라는 역사적 소명을 부여받은 것으로 여기고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행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공주시 맞춤형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안내서 발간

공주시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시범기관으로 시민들의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안내서’ 책자 100부를 제작 각 실과, 민원실, 읍면동과 복지시설에 배부했다.



공주시는 2007년의 희망찬 첫출발을 위해 1월1일 오전7시30분, 아름다운 금강에서 솟아오르는 새해 해맞이 행사를 개최하였다. 금강의 수면 위로 찬란히 떠오르는 감동의 순간을 맞으며 한해의 평안과 행복을 공주시민과 함께 기원하였다.

공주시 제3회 금강환경대상 영예

공주시가 금강유역환경청과 중도일보에서 공동 개최한 제3회 금강환경대상에서 대상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금강환경대상은 금강유역환경청과 중도일보에서 대전·충청지역의 쾌적한 환경행정발전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를 발굴하여 환경보전 의식을 함양하고 환경실천을 주민운동으로 확산시키고자 제정한 영예로운 상이다.

대상을 수상한 공주시는 관·학·기업이 함께하는 삼위일체형 환경보전운동, BIO-GAS를 이용한 신 재생에너지개발, 폐 플레카드를 이용한 마대제작, CLEAN -CITY조성을 위한 폐기물 줄이기 운동, 난개발방지를 위한 환경보전자문위원회 구성운영, 환경법령 50% 줄이기, 환경행정서비스현장 제정 운영 등 타 시·군·구의 수범이 되는 환경정책으로 제3회 금강환경대상에 선정되게 되었다.

행정도시 도시경관 윤곽 제시

도시의 기초색은 '밝은 아이보리와 옅은 갈색'으로

행정도시 도시경관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자 추진되고 있는 「도시경관 전략연구」의 윤곽이 제시되었다.

‘도시환경색채 가이드라인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충남대 건축학부 이진숙 교수는 “화사하고 깨끗하나 정갈한 이미지의 밝은 아이보리와 옅은 갈색”을 행정도시의 기초색(주로 적용할 색채)으로 제안하였다.

△ 옥외광고물은 품격을 높이고 건축물과의 조화

1) 행정도시 내 권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옥외광고물의 크기, 수량, 설치위치, 색채, 재료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고 이를 지구단위 계획지침으로 운영하는 한편, 건축허가 및 신고시부터 옥외광고물 설치계획서 제출을 의무화

2) 행정도시의 옥외광고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광고물 허가 및 단속권을 건설청장의 권한으로 이관하는 한편, 주민 스스로가 광고물을 관리할 수 있도록 광고물 협정제를 도입

3) 옥외광고물을 제작하는 자의 실명을 부착하도록 하고, 점포를 분양·임대할 경우에도 광고물 설치계획서 관련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기로 했다.

△ 도시 이미지의 통일성을 확보하기위한 건축물 미관기준 제시

1) 주거시설의 경우, 클러스터형 주거, 연도형 공동주택, 중정형 또는 탑상형 공동주택에 대한 미관기준과 함께 커뮤니티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알파룸(공용의 다목적 공간), 필로티 기준 등 제시

2) 상업·업무시설의 경우, 보행활동이 활발한 지역 중에서 아케이드 설치구간을 지정하거나 쇼핑몰 등 보행동선을 연결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공중회랑의 설치를 유도

3) 공공시설의 경우에는 복합용도시설의 설치기준, 선큰공간 미관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활력 있는 커뮤니티 공간조성을 도모한다.

건설청은 중간보고회를 마친 3개의 과제에 대해서는 내년 7월까지 전문가 자문 의견, 공개 세미나 결과 등을 반영하여 연구내용을 보완토록 하는 한편, △ 공원·녹지·수변공간 조성 △ 공공시설물 환경디자인 △ 야간경관 △ 도시구조물에 대한 미관기준 연구 등 나머지 경관연구에 대해서도 향후 보고회 및 자문회의를 통해 연구내용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공주시 “공산성” 살기좋은 지역자원 100선 선정

공주시가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지역자원 경연대회 공모전에 건축물 분야에 ‘공산성’을 출품해 전국 우수지역자원 제32호로 공식 인증 받았다.

시에 따르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행자부가 주최하고 서울신문사가 주관한 전국의 아름다운 숲, 도로, 공원, 자연경관 등 우수한 지역자원을 발굴 살기좋은 지역만들기를 전국에 확산시키고자 열렸던 제1회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지역자원 경연대회 공모전에서 ‘공산성’이 전국 우수지역자원 제32호로 공식 인증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경연대회는 8개분야 26개 항목에 걸쳐 전국에서 753개 작품이 접수되어 1차 심사에서 130개 작품을 뽑아 현지실사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우수지역자원 100선을 확정해 지난 7일 정부종합청사 대강당에서 시상식이 있었다.



공산성은 백제시대 축성된 산성으로 백제 때 웅진성으로 불렸다가 고려시대 이후 공산성으로 불리게 되었는데 475년(문주왕 1) 한 산성(漢山城)에서 웅진(熊津)으로 천도하였다가, 538년(성왕 16)에 부여로 천도할 때까지 5대 64년간의 도읍지인 공주를 수호하기 위하여 축조한 산성이다.



공주 장기면의 건아 김학한 선수가 카타르 도하 아시안게임 84kg급 태권도 ‘물배’의 투혼으로 금매달을 거머쥐었다.

공주시 여성농업인 능력개발 「농촌관광반」 교육

- 주말관광은 우리 마을에서! -

공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 鄭胤吉)에서는 12월 14일 공주시생활개선회 회원 150명에게 농촌관광반 교육을 실시했다.

도시민의 주말관광을 우리 농촌으로 돌리는 5도 2촌의 도시 공주 만들기 교육을 실시해 발상의 차이로 결과는 확연히 달라진다는 개념을 심어주었다.

공주교육청, 2006 전국 100대 교육과정 우수교 선정 쾌거

효포초, 공주여중, 공주고 등 3개교 선정

효포초등학교(교장 구영모), 공주여자중학교(교장 김정희), 공주고등학교(교장 이건주)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발표한 2006년도 전국 100대 교육과정 우수학교 선정 공모에서 우수학교로 선정되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주최하는 전국 100대 교육과정 우수학교 선정은 학교 여건 및 지역 특색을 반영한 교육과정 우수 학교의 발굴·포상을 통하여 교육과정 운영의 질적 수준을 높여 학교 경쟁력을 강화하고 공교육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의 자체 예선을 거쳐 본선에 오른 988개교를 대상으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위촉한 대학교수 등 교육과정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단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교육과정 우수학교가 선정되었다.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책자와 월동기 종합대책 매뉴얼 작성



시가 발간한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책자는 응급시 신속한 초동대처와 대비·대응·복구에 필요한 분야별로 대응해 나가는 처방전을 상세히 기록한 것으로 읍·면·동에 배부해 사용토록 했다. 특히, 어려운 계층에 대한 안정적인 생활을 도모하고 겨울철 화재 등, 각종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슬기롭게 대처해 나갈 수 있는 '06년도 공주시 월동기 종합대책'의 사태별 대응매뉴얼을 수립, 안전을 우선시 해 그 어느 때보다 시민들이 훈훈하고 사랑이 넘치는 편안한 겨울을 보내도록 만전을 기했다.

이제는 학교도 브랜드 시대

공주신월초 학교브랜드 “한얼 공주신월교육” 선포



공주신월초등학교(교장 조동수)에서는
신월 교육가족들의 큰 관심 속에 학교 브
랜드 ‘한울 공주신월교육’을 선포하였다.

첫째, 기초·기본 학력 정착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여

- ▲ 기초학력책임지도제 실시로 학습부진학생 제로운동 전개
- ▲ 성취목표 설정으로 교과학습력 신장

둘째, 바른 생활태도 육성으로 인성을 함양하기 위하여

- ▲ 공주신월 생활본 활용으로 기본생활 습관 형성
- ▲ 칭찬릴레이 운동으로 공동체 의식 기르기

셋째, 방과후 학교의 효율적 운영으로 교육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 ▲ 특기·적성 교육 강화로 잠재력 개발
- ▲ 지역사회와 연계한 교육 실시

넷째, 공주신월 인증제 운영으로 재능을 함양하기 위하여

- ▲ 한자 급수제 실시
- ▲ 영어·컴퓨터 급수제 실시 등 네 가지 구현방안이 모색되었다.

공주시 “제7회 공공혁신전국대회 대상” 영예 차지

공주시는 12월 2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사)한국공공자치연구원 (원장 정세욱) 주관으로 개최된 제7회 공공혁신전국대회에서 지방자치단체부문 ‘대상’의 영예를 차지했다.

이날 공주시는 행정서비스분야 “농촌들판의 농기계 119” 혁신우수사례를 발표하
여 심사자 및 참가자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받았다.

이 사업은 농기계 순회수리사업으로 노령화, 부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
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농기계순회수리 팀을 운영하여 영농 철 오지마을
을 중심으로 매일 순회 출장서비스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농기계순회시스템을 개발
특화시켜 관내 300여개 농촌부락을 매일 순회하면서 리콜 없는 완벽한 수리 “농촌
들판의 농기계 119” 활동사례를 발표해 대상을 받게 된 것이다.

공주시 부시장 이·취임식



신임 전선규 부시장

공주시는 1월 11일 대회의실에서 부시장 이·취임식을 가졌다. 전임 심중훈 부시장은 이임사에서 “여러분들의 따뜻한 보살핌과 성원으로 무사히 임무를 마치고 떠나게 되어 깊은 감사를 드리고 공주시 발전을 위하여 도울 일이 있으면 열심히 돕도록 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준원 공주시장을 정점으로 더욱 합심해 힘찬 도전정신으로 위대한 공주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해주길” 당부했다

한편 새로 부임하는 전선규 부시장은 1950년 4월 27일 공주시 계룡면에서 출생하였으며, 김옥랑 여사와의 사이에 1남 2녀를 두고 있다

주요경력으로는

- ▶ 1969년 2월 11일 충청남도 천원군 목천면에 첫 발령을 받은 후
- ▶ 1990년 3월 10일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승진 공주군 문화공보실장으로 부임
- ▶ 1993년 7월 29일 충청남도 공보관실 홍보기획계장을 역임
- ▶ 1996년 2월 17일 충청남도 충무과 의전계장, 인사계장을 역임
- ▶ 2001년 1월 5일 지방서기관으로 승진 충청남도 의회사무처 전문위원, 국제통상과장, 충무과장을 역임했다. 전 부시장은 취임사에서 “공직자 여러분과 함께 손잡고 최선을 다한다면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 위대한 공주’의 건설은 확실함으로 이를 위해 우리의 모든 역량과 힘을 모아가자”고 전제하면서 “행정의 최일선에서 느낄 수 있는 보람과 고향의 따뜻한 정이 듬뿍 느껴지는 오늘 공직에 임문할 때의 초심으로 돌아가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했다.

금강뉴스 신윙희 대표, 국제문화예술상 수상

지역문화 발전 공로, 사진예술부문서 - 지난 12월 20일



2006 제7회 국제문화예술상에 신윙희 금강뉴스 대표가 사진예술부문 본상을 수상했다. 신윙희 대표는 지역의 문화와 민속 등을 사진으로 기록, 우리의 정체성을 찾는 예술세계를 보여줌으로써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이날 수상을 했다.

“공주인들이 원한다면 모든것 바칠것”

—정운찬 전 서울대총장, 재경 공주향우회 송년의 밤서—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이 “공주인들이 원한다면 모든 것을 바칠 것”이라고 밝혀 대선출마에 대한 간접적인 의지표명이 아닌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고향이 공주시 탄천면인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은 축사를 통해 “나는 공주가 고향인 영원한 충청도 사람으로 늘 긍지를 갖고 충청도를 떠 올린다”고 말했다. 또한 “충청도는 선비의 고장으로 역사적으로 의인이 많고, 느리고 신중하면서도 투사의 이미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동안 땀뻘 땀 공주에서 그리고 공주인들이 원한다면 미력이나마 공주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있을 것이고, 그것을 위해 모든 것을 나의 바치겠다”며 앞으로 자신의 행보에 대한 암시적인 발언을 했다. 김용래 충청향우회 총재는 이날 “이렇게 많이 모인 것은 처음 봤다”며 “앞으로 충청권 1,200만의 대통합을 이루자”고 말했다.



이날(2006년 12월 26일) 향우회에는 심대평 국민중심당 대표를 비롯한 정진석 국회의원, 김학원 국회의원, 오시덕 전 국회의원, 김용래 충청향우회총재, 오제직 충청남도 교육감, 송준영 전 향우회장, 류근창 명예향우회장, 윤석금 향우회장, 김재현 공주대 총장, 이준원 공주시장, 박공규 도의원, 이동섭 공주시의회 의장 및 향우회원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제5회 정훈문학상 대상수상 시인 최원규



1939년 충청남도 공주출생
공주사범대학, 충남대학교졸업
충남대학원졸업(문학박사)
충남대 교수, 문과대학장 역임
1962년 <자유문학>신인상 당선 등단
시집 “금채적” 등 15권
저서 “한국근대시론고” 등 5권
충청남도 문화상, 국민훈장 모란장 등 수상
한국문인협회 충남 지회장 역임
대전시인협회 초대회장 역임
현 충남대학교 명예교수

사단법인 효장학회 이화영 이사장 1,000만원 장학기금 기부



이화영 이사장

사단법인 효장학회 이화영(77세, 공주대 명예교수) 이사장은 11월 17일부터 21일까지(5일간) 공주문화원 전시실에서 서예전시회를 갖고 작품을 판매하여 남은 수익금(615만원)과 사비(385만원)를 더하여 1,000만원을 13일 효장학회 기금으로 기부했다.

또한 서연 이화영 교수는 2007년 1월 12일에 문예회관 소강당에서 효실천 학생과 일반인 36명에게 750만원의 장학금을 수여하기도 했다.

웅주 로타리클럽 회원 어려운가정 집수리봉사

공주시 웅주 로타리클럽 회원이 2006년 12월 3일 집수리 봉사를 해주어 쌀쌀한 겨울 날씨를 녹여주었다.

공주 웅주 로타리 클럽(회장 김태호) 회원 15명은 살림이 어려운 의당면 요룡리 김운순외 2가구에 대하여 집수리 봉사(지붕보수, 부엌하수구, 전기배선, 방 전기판넬, 도배장판 등 350만원상당)를 해주었다.

공주시 직원 불우한 이웃과 함께

공주시 공무원들이 2006년 12월 4일부터 불우한 이웃과 같이 하기 위해 자율적인 성금을 모금했는데 이준원 시장 외 979명의 직원이 참여 2천 538만 6천원의 성금을 모아 기탁했다.



꿈의 교회 “빛과 소금”이 되어 이웃사랑 실천

공주시 웅진동에 위치한 꿈의 교회(담임목사 안희묵)에서는 2006년 12월 4일 사랑의 성금 5백만원을 이준원 공주시장에게 기탁했다.

이번 기탁금은 안희묵 목사와 성도들이 십시일반으로 성금을 모아 연말 어려운 이웃돕기 성금으로 공동모금 회에 기탁해 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지원하게 된다.



꿈의 교회에서는 올해 사회복지지원사업을 위해 1억 5천만원의 기금을 책정 가족사랑 상담소 운영, 사랑의 집수리봉사, 경노당 위문, 저소득학생 장학금지급, 이웃사랑 대잔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사랑과 후원을 베풀고 있다.

고향 발전에 작은 도움이 되고파



공주시 사곡면 부곡리에 거주하는 김석환(49세) 씨는 12월 8일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랑의 성금 5백만원을 이준원 공주시장에게 전달했다.

사곡면이 고향인 김씨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상경하여 갖은 역경을 겪으며 자수성가 하여 금의환향한 사업가로 고향을 사랑하고 늘 고향을 그리워하며 고향에 돌아갈 날을 기대하며 열심히 일했다.

김 씨는 여생을 고향에 봉사하기 위해 돌아온 김씨는 사곡면 부곡리에 “동화속풍경”이라는 펜션을 구상 추진하고 있으며 어려운 주민을 위해 일손도 도와주고 성금도 지원하는 등 복지사업가로 발벗고 나서고 있는데 “앞으로도 지역발전을 위하여 공주시가 추구하는 더불어 행복한 복지공주를 이루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사랑의 포순이봉사단

눈이 많이 내려 혹독히 추운날인 06년 12월 16일 쌀쌀한 날씨에 공주시 포순이 봉사단 및 공주영상대학 사회복지과 학생들이 세상을 따뜻하게 해주었다.

공주시 포순이 봉사단과 공주영상대학 사회복지과 학생들은 어려운 이웃에게 삶의 용기와 희망을 심어줄 재원으로 천안IC 톨게이트에서 매서운 찬바람과 매연을 이겨내며 사랑의 동전 모금회를 가졌다. 이날 천안IC 톨게이트를 지나치는 시민들이 따뜻한 마음을 성금하여 주신 금전 삼백여만원을 사랑의 모금회로 기탁하였다.

이번행사는 12월 16일 아침9시부터 저녁7시까지 이뤄졌으며, 봉사단 김명기 연합회장, 이용엽, 최선자 봉사단장, 신관동 봉사단간부, 공주영상대 사회복지과 재학생, 유영호 공주시 지부장님이 자리를 끝까지 함께하였다.



공주교육청, 난치병 및 장기질환 학생 위로금 전달

관내 난치병 학생 3명에게 3백만원 전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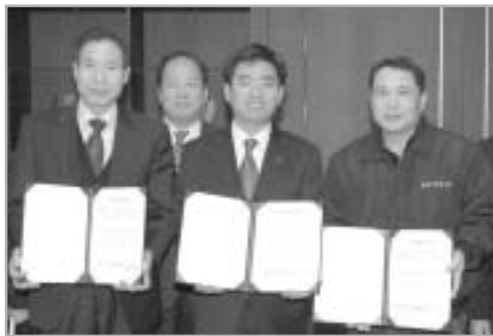


충청남도공주교육청(교육장 김종성)은 2006년 12월 18일 교육장실에서 가정형편이 어려워 치료비 마련 등에 곤란을 겪고 있는 관내 난치병 및 장기질환 학생 3명에게 1인당 1백만원씩 3백만원의 위로금을 전달하고 격려하였다.

공주시“아이(eye)사랑행복한세상”

후원자 연계 활발

공주시는 “아이(eye)사랑 행복한 세상” 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2006년 한해 안경이 필요한 기초생활수급자를 일제 조사하여 1차로 학생 350명에게 맞춤형 안경을 지원하였으며 2006년 9월에는 저소득어르신 500분에게 돋보기를 지원하였다. 12월 15일에는 학생 및 일반인 342명에게 (주)삼성아이텍(사장 이용진)과 서독안경원(산성동, 사장 최재웅)의 후원으로 시장실에서 협약식을 갖고 맞춤형 안경을 지원하였다.



초등생 작은 정성모아 이웃에

공주 귀산초 2학년 1반, 말기암 환자 돕고자 모금



공주시 귀산초등학교(교장 이덕삼) 2학년 1반 학생 26명이 작은 관심과 사랑을 모아 추운 겨울을 힘들게 나고 있는 이웃에게 작은 사랑을 베풀어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

학생들은 바른생활 수업시간에 “우리 함께 나눠요”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해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사연을 접하고 말기암 환자이면서도 병원치료를 하지 못하고 일을 나서야 하는 엄마와 정신지체의 어린 아들, 세차장 일을 해가며 많은 빚을 갚기 위해 무허가 컨테이너박스에서 어렵게 지내고 있는 이들 가족 이야기를 듣고 2학년 1반 학생들은 이구동성으로 이들을 돕겠다고 나섰다.

이에 따라 담임교사와 함께 26명의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성금을 모금하여 10여만 원의 성금을 모아 이들 가족에게 전달했다.

모금에 참여한 한 학생은 “적은 금액이지만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나보다 어려운 친구를 보니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모금에 참여했는데 어려운 친구를 도와줄 수 있어서 행복하다”고 말했다.

김관인 담임교사는 “이웃의 어려운 사연을 접하고 스스로 돕겠다며 나선 학생들이 기특하고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공주시여성의용소방대 이웃사랑 실천”

산불조심 캠페인 및 소외계층 성금전달 등 소외계층 보살펴



공주시여성의용소방대(대장 이춘옥)는 연말을 맞아 근육이완증 장애를 앓고 있는 옥룡동 선규, 대구 형제를 찾아 대원들의 성금 20만원을 전달하고, 웅진동 독거노인 안모씨(80세) 세대를 찾아 성금 10만원과 집안 청소 등을 실시하여 잠시나마 이들의 아픔을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에 앞서 신관동 호태산 및 쌍신동 연미산 등산로에 대한 산불조심 플래카드를 게재하여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등 산불조심 캠페인도 펼쳤다.

공주시여성의용소방대는 평소에도 어려운 이웃과 아픔을 나누는 등 남다른 봉사활동을 펼쳐 지역주민들의 애환을 나누는 등 지역발전을 위한 여성단체이다.



마을 회관에 난방유 지원

공주 농촌공사

한국농촌공사 공주시사 장범주 지사장을 비롯해 직원들은 12월 12일 이인면 목동리 1구, 2구, 발양리를 비롯해 우성면 방문리, 장기면 송문리 등에 모두 등유1600ℓ 시가 130만원상당)를 전달하였다.

공주시사장은 “한국농촌공사 공주시사 모든 직원은 가뭄을 이겨내고 풍년농사를 이루어낸 우리 농업인들이 자랑스럽다”며 “내년에도 풍년농사를 달성하는데 농촌공사 모든 역량을 동원 농업인들을 돕겠다”고 말했다.



☐ 카루베 약탈 유물 공주 돌아왔다.

공주 송산리 고분을 비롯한 공주의 유물의 전문적인 도굴꾼 카루베 지온(輕部慈恩·1897~1970)이 일본으로 가져간 유물 중 와당이 공주로 돌아왔다.

공주박물관은 06년 11월29일 일본 미와 가로쿠(三輪嘉六)큐슈박물관장으로부터 백제연화문 기와 유물 4점을 수납했다고 밝혔다. 돌아온 유물은 1935년 카루베가 공산성에서 발굴했다는 것으로 연꽃무늬 백제기와 4점이다.

이 유물의 공주 송환 과정은 카루베 사후 그의 부인인 토시코(敏子)가 1970년부터 나라 국립박물관에 기탁해 왔던 것이다.

KBS대전방송이 작년에 프로그램 제작 차 카루베 유족을 만나 인터뷰한 이후 유족이 큐슈국립박물관장인 미와씨에게 상담, 미와씨가 “이 유물은 본래 제자리로 돌아가야 마땅하다. 마침 자매박물관인 국립공주박물관(관장 신창수)에 기증하는 것이 좋겠다”하여 이날 수납서 체결식이 이루어졌다. 미와 관장은 니혼대학 교수를 지낸 가루베의 제자로, 유족을 대신해 유물 반환의 절차를 대행하기 위해 래공한 것이다.

카루베는 시즈오카현에 있는 니혼(日本)대학 교양부(현 국제관계학부) 교수로 지내면서 고고학을 가르쳤다 한다. 그곳 대학 창고에 연꽃무늬와 같은 백제기와 유물이 더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미와 큐슈박물관장은 말했다. 아울러 카루베의 제자인 현 일본 시즈오카 모치의 교장선생이 또한 그 비밀 중 일부를 알고 있을 것이라 전했다.

카루베는 “1927~1932년 사이에 공주지역의 고분 738개를 조사했고, 10여편 이상의 글을 남겼을 뿐만 아니라 금강이나 공주의 어원이 ‘곰강(熊川)’과 ‘곰주(熊州)’였다고 주장할 정도로 고고학에 해박했다”고 윤용혁(공주대)교수는 밝혔다.

공주박물관 신창수 관장은 “이번 유물은 공주 공산성에서 출토된 것이 확실하다”면서 “비록 4점의 유물이지만 공주로 돌아오게 돼 다행”이라고 밝혔다.

공주박물관 측은 “가져간 유물이 이것뿐일까 의문을 품는 사람도 있다”고 말했으며 미와 큐슈박물관장은 “만약 앞으로 유물이 밝혀진다면 기꺼이 공주로 돌려보내는데 협조할 것”이라는 유족(카루베 장남)의 말을 전했다.



“공연장에 마실 왔어요”

한국공연예술체험마을서 무료 공연 유구 입석리 주민 활기넘쳐



공주시 유구읍 입석리에 위치한 한국공연예술체험마을 (원장 최종원) 선돌소극장에서 무료로 ‘선착장에서’(극단 골목길)라는 연극이 공연되었었다. 이 공연은 울릉도 소시민들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으로 2005년 올해의 예술상 수상작이기도 하다.



한국 친정어머니 “우리 문화 가르치겠다”

다문화(多文化) 가정 송년축제

송년축제 행사가가 국제결혼가정 가족과 이준원 공주시장, 궁재영 사회복지관장, 윤구병 공주시의회부의장 등 관련기관단체장과 행사를 위한 자원봉사자 500여명이 참석 했다.

이준원 시장은 격려사에서 “내국인끼리 결혼해도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갈등이 크다. 서로의 문화적 다양성을 이해하고, 이런 기회를 통하여 극복해 나가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공주시독교종합사회복지관(관장 궁재영)이 주관하고 공주시에서 후원한 ‘다문화 가정과 함께하는 송년축제’가 2006년 12월 28일 충남 운수연수원 대강당에서 열렸다.



독서를 통한 마음의 혁신!

공주교육청, 혁신 독후감 경진대회 입상자 시상

충청남도공주교육청(교육장 김종성)은 2006년 12월 5일 공주지역 교육가족을 대상으로 한 「2006 혁신 독후감 경진대회」 심사결과, 우수자에 대한 시상식을 가졌다.

교육가족 혁신 독후감 경진대회는 교육혁신을 보다 활성화하여 교육가족의 자기만족과 벤치마킹 실현으로 고정관념 극복을 통한 혁신 내재화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관내 교원 39명, 학부모 11명이 응모하여 공정하고 엄격한 외부심사 실시 결과 최우수상에 유구초 교사 김미명의 '칼의 노래를 읽고', 우수상에 당암초 교사 최윤경의 '칭찬의 꽃을 피우길 바라며', 귀산초 학부모 정찬미의 '당연한 것은 이 세상에 없다'가 선정되었다.

최우수상을 차지한 유구초 김미경 교사는 "그동안 영웅으로만 비춰진 충무공 이순신을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바라보며 처음부터 대범한 성격이 아니었던 그의 변화를 통해 반드시 변화해야 할 현재 한국인, 한국 사회의 몫을 재조명하고자 하였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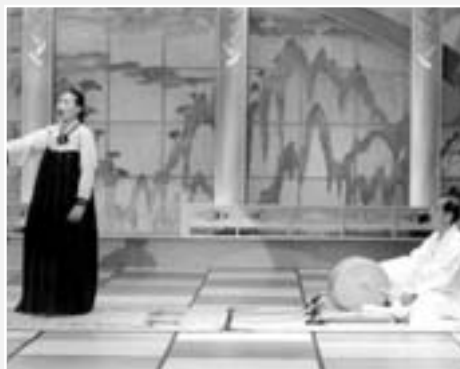


故 박동진선생 추모 『인당의 향음 '06』 국악공연

공주시 문예회관 소강당에서는 06년 12월 16일부터 18일까지 故 박동진 선생 추모 『인당의 향음 '06』 국악공연이 펼쳐졌다.

12월 16일 3시에 소강당에서 조통달 선생의 '인당 선생과 완창 판소리'에 이어 17일 3시부터 대공연장에서 서용석 외 22인의 '소리북 작품 악부천명' 공연이, 18일 저녁 6시 30분부터 소공연장에서 송순섭외 8인의 '판소리 적벽가' 연창이 있었다.

판소리 완창이란 혼자서 5~6시간 동안 쉬지 않고 부르는 것으로서 선생이 효시가 되었으며 세계무형유산으로 등록된 중요한 우리 전통예술의 자산이다.



『판소리』 하면 전통적인 한국 민속악의 한 양식이야기를 노래로 부르는 형식이며 중요 무형문화재 제5호로 故 인당 박동진 선생을 떠올리게 한다.



공주시 석장리 박물관 역사적 의미 홍보

- 교육과 영상자료 상영 -

우리나라 학계에서는 처음으로 구석기 고고학의 뿌리를 내리게 한 유적으로 1990년 사적 제334호로 지정되어 06년 9월 26일 개관한 석장리 박물관에서 그 역사적 의미를 알리기 위한 홍보에 나선다

시에 따르면 12월 13일과 20일 유치원 교사와 어린이집 교사 등을 대상으로 석장리박물관 영상실, 전시실 등에서 전시유물 해설 등 박물관 교육을 실시하고, 12월 14일, 21일, 28일 석장리 박물관 영상실에서 관람희망자 모두에게 인류오디세이(90분), 한반도의 첫사람들(60분), 상원검은모루 구석기유적(60분)등 영상자료를 상영하였다.



석장리 박물관은 우리나라의 역사가 단군시대보다 앞서는 구석기시대부터 이 땅에서 사람이 살아왔다는 귀중한 사실을 밝히게 한 유적으로 구석기시대 전기·중기·후기 그리고 중석기시대의 문화층이 가늠되었고 신석기 청동기시대의 유물도 찾아져 선사시대 전시기에 사람이 살았던 증거가 되는 매우 중요한 유적들을 전시중이다.



공주시 웅진 도서관 도서예약제운영

공주시 공공시설관리소 웅진도서관에서는 시민들에게 더 많은 열람 기회와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도서예약제를 시행 한다.

시 도서관에 따르면 2006년 12월 4일부터 도서예약제를 실시하는데 이는 대출 중인 도서에 대한 예약과 대출을 서비스하는 것으로 대출 중인 도서에 한해, 예약인원은 한명만 가능하고 예약도서 반납 시 휴대폰 문자메시지나 전화로 대출 가능 정보를 제공하며 예약도서는 대출데스크에 따로 비치하여 예약도서가 2일 이내에 대출되지 않을 경우, 자동 예약 취소되는 제도라고 밝혔다.

한편 예약 방법은 웅진도서관 홈페이지 접속하여 자료 검색 후 서명 클릭 선택 후 대출예약 신청하면 된다.



충청남도역사문화원 제13회 정기워크숍

“침구의(鍼灸醫) 허임의 활동과 공주문화”

충청남도역사문화원(원장 정덕기)과 허임기념사업회(이사장 김남수)는 12월1일 공동으로 「침구의(鍼灸醫) 허임의 활동과 공주문화」란 주제를 가지고 국립공주박물관 강당에서 학술세미나를 개최 하였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조선시대 최고의 침구의원이었던 허임이 공주에 정착한 역사적인 인물임에도 개인적 사료가 부족해 일반인들에게 알려져 있지 않아 조선 최고의 침구의원인 허임을 재조명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경인교육대학교 김호 교수는 「침구경험방의 의료사적 위치」라는 주제발표에서 조선 최고의 침의인 허임이 치중교수직을 역임하였고, 그의 후학들도 대부분 치중의로 활약하였음을 주목하였다. 허임이 편찬한 《鍼灸經驗方 침구경험방》은 단순히 중국의학을 정리하거나 베끼는데 불과한 것이 아니라, 중기를 짚고 피고름을 빼내는 과정에서 침자(針刺)와 방혈(放血)을 위한 항구(缸灸)와 같은 독특한 기술들을 발달시킬 수 있었다고 보았다. 또한 허임 의학은 침구술 뿐 아니라 항구(缸灸)를 이용한 치중(治腫) 전통을 고려한 조선 침구의학의 특수한 맥락 속에서 종합적으로 고찰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충남역사문화원 충청학연구부장 임선빈은 「허임의 공주정착과 공주문화」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허임은 임진왜란의 전란속에서 당시 왕세자였던 광해군을 수행하면서 공주와 깊은 연고를 지니게 되었고, 후에 위성공신 3등에 책봉되면서 공주지역에 사패지를 하사받아 공주에 정착”했을 것으로 추측하였다. 또한 허임의 후손과 제자의 후손들이 거주하는 공주부전동(공주시 우성면 내산리 일대)은 그가 만년에 정착하여 《침구경험방》을 집필하고, 후진을 양성한 곳으로 밝혀졌다. 나아가 공주의 역사인물로 발굴·연구된 허임을 빼어난 자연경관과 수백년의 문화전통을 간직하고 있는 「부전동」과 연계하여 활용 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하였다.

정덕기 원장 개회사



종합토론





“헬로우 장승”

공주시 사곡면 운암리 마을 주민들 영화 제작



공주시 사곡면 운암리 마을 주민들이 농한기 문화예술훈을 통해 화합과 발전을 도모하고 마을의 문화적 우수성을 대내외에 홍보하고자 영화를 제작하였다.

장승영화제 추진위원회 권재덕 위원장과 마곡초등학교, 공주영상정보대학의 협조 아래 인터넷 게임 재즈 등의 문화를 가진 신세대들과 운암리 마을이 갖고 있는 전통문화에 익숙한 마을주민들이 서로의 문화를 아끼고 사랑해 발전해 나가자는 의도에서 15분내·외의 단편극 영화를 제작하였다.

12월 1일부터 3일까지 촬영 후 편집하여 20일 공주문화원에서 시사회를 가졌으며, 다큐멘터리 상영 및 본 영화상영 등 마을 잔치로 승화 주민의 화합을 다지고 예술 활동을 통한 부락의 우수문화성을 전국에 널리 홍보하였다.



영화제목은 “헬로우 장승”으로 가을걷이가 끝난 농한기 어느 날 오후, 마을에서 금기시하는 장승제단 앞에서 아이들이 재즈댄스를 추게 되는데 마을주민들이 말리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춤을 추게 된다.

이후 댄스를 추었던 명랑한 한 아이가 평소와 다른 이상한 행동이 시작되자 장승의 노여움을 타서 그렇다고 하면서 불길한 소문이 퍼지자 마을의 어른들이 지성을 드리지만 이 아이는 병석에 눕고 만다. 하지만 어떤 기화로 일어나게 되어 마을 어른들과 아이들이 그들만의 문화를 서로 배우고 사랑하게 된다는 내용의 영화이다.



112주년 동학농민혁명 기념대회 및 2006 우금티 예술제 개최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 주최하고, 동학농민전쟁우금티기념사업회와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단체협의회가 주관하는 동학농민혁명 기념대회 및 우금티 예술제는 112년 전, 반외세·반봉건의 기치를 내걸고 자주·평등·대동세상을 만들고자 일어난 동학농민군들의 원혼을 달래고 그 정신을 오늘에 계승코자 하는 행사이다.

12월 8일 전야제와 공주지역 문화단체들의 공연을 시작으로 9일에는 우금티 답사 및 심포지엄과 문화공연을 비롯한 유족의 밤 행사, 10일에는 특별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국가차원에서 이뤄지는 <112주년 동학농민혁명 기념식>과 거리 행진, 추모 제례가 진행되었으며, 공주문화원 1·2전시실에 동학동민 영상 전시가 있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전국적인 규모와 참여로 이루어지는 점에서 그 의미가 컸으며, 오늘날 전 지구를 휩쓸고 있는 산업문명의 문제점을 성찰하고, 농업과 지역, 생명'을 살리기 위한 '2006 우금티 선언'이 제창되었다. 또한 동학농민전쟁의 대표적인 격전지의 하나인 공주에서 전국적인 규모로 처음 개최되는 이번 <112주년 동학농민혁명 기념대회>와 <2006 우금티 예술제>에 거는 기대와 관심으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충남관악단 ‘희망울림’ 제2회 연주회 개최

하얀 첫눈처럼 빛나는 겨울로의 초대

충남관악단 희망울림(단장 임대혁)이 06년 12월 7일 공주문예회관에서 제2회 정기연주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정기연주회에는 지역 장애우와 가족, 유관기관, 사회단체, 지역주민 등을? 초청하여 관악단 38명 (장애인 25명, 비장애인 13명) 이 하얀 첫눈처럼 빛나는 겨울로 초대 연주를 선보였다.

충남관악단 희망울림은 지난 2004년 6월부터 준비를 시작하여 같은 해 12월 충남의 장애우를 대상으로 오디션을 통해 단원을 선발해 오고 있는데 단원들의 장애유형도 지체, 시각, 뇌병변, 정신지체, 정신장애 등 다양하다.

‘충남관악단 희망울림’은 올해 2회째로 음악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보이지 않는 세상의 벽을 허물어 가는 아름다운 사랑의 메신저로서 지역 사회 공연 및 초청행사에 참여하여 지역사회에서 장애우에 대한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개선하는데 큰 몫을 해오고 있다.



공주문화원에 찬조금을 기탁해 주신분

공주시 동우회(12월 22일)

예술의 향기

|지역발간 책자 소개|



錦江의 돛

2006 열아홉번째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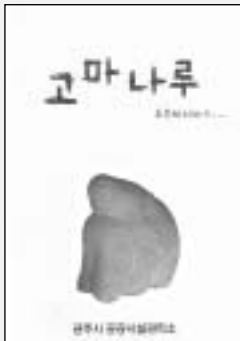
공주지역 독서회 모임에서 공주도서관 중심으로 활동하여 제작, 편집, 발간한 책자이다. 독서회모임의 정성과 노력의 결실이 담긴 소중한 내용이 담겨져 있으며, 공주도서관(공주시 중동 315-6)에 찾아가면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



公州女性文學

2006 제11집

공주지역 문학여성모임인 “공주여성문학회” 회원분들의 한사람 한사람 정성으로 모아 11호가 발간되었다. 공주지역의 웃음과 눈물, 고뇌와 아픔이 녹아있는 강인한 공주지역 어머니들의 책자이다.



고마나루

두 번째이야기

공주시 웅진도서관에서는 지역주민의 독서문화를 이끌어 온 웅진어머니독서회의 작품과 독후감상문 공모전 수상작품, 독서교실 수료자 작품 등을 모아 ‘고마나루 2집’을 발간했다.



公州文學

2006년 제18집 -한국문인협회 공주시부-

공주문학 18집이 공주문학 회원님들의 정성스런 내용을 담아 발간되었다. 1988년부터 발간하여 18번째 책인 공주문학 책자는 ‘세월은 인간을 기다리지 않는다’라는 이극래 지부장님의 머리말로 시작하여 가을시화전, 시, 소설, 희, 수필, 평론, 청소년백일장 등으로 꾸며져 있다.

실버문화학교 어르신과 아이들의 만남

옛것을 계승하자는 향토문화지킴이 실버문화학교 어르신들이 12월 1일 장기초등학교 어린이들과 화합의 만남이 이뤄워졌다.

공주문화원 주최로 이루어진 이번행사는 우리고장 예능을 지니신 어르신분들과 어린이들이 현장에서 어린이들에게 딸치기, 집터다지기, 가리게소리, 논매는소리등 여러 가지 전통놀이를 체험 계승하여 우리 전통문화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고 세대간의 화합을 다짐하였다.

실버문화학교는 문화관광부·국무총리복권위원회·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후원, 고령화 사회를 눈앞에 둔 시점에서 노년세대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하여 2005년부터 <땡땡땡! 실버문화학교>를 진행해 왔으며, 현재 전국 50개 문화원에서 다양한 문화자원을 발굴·전승해 왔으며, 노년의 삶을 보람차고 긍정적인 삶으로 변화시켜가고 있다.



우리고장 예능을 지니신 어르신분들과 어린이들이 현장에서 어린이들에게 딸치기, 집터다지기, 가리게소리, 논매는소리등 여러 가지 전통놀이를 체험 계승하여 우리 전통문화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고 세대간의 화합을 다짐하였다.

2006 공주문화원 지역문화학교 가곡의 밤 개최



국화꽃 저버린 겨울 뜨락에 창 열면 하얗게 무서리 내리고 나래 푸른 기러기는 북녘으로 날아가는 겨울인 초겨울밤 공주시민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할 “2006 공주문화원 지역문화학교” 가곡의 밤 행사가 공주문화원 주최로 12월 11일 7시 공주문화원 대강당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 행사는 평생교육사업 일환으로 가곡 교실에 참여하여, 실력을 향상에 끊임없이 노력한 지역문화학교 가곡반원들이 “그대 이름 바람에 흩날리네” 등 18곡을 공주시민을 위하여 무료로 준비하였다. 가곡부르기를 관심 있는 따뜻한 공주시민들을 대상으로 공주문화원 지역문화학교 가곡 교실을 모집하고 있다.

2007 새롭게 변화하는 공주문화원 도서관

공주문화원 도서관이 많은 향토자료와 더 편안한 도서관으로 공주시민 및 네티즌에게 제공되고자 한다.

공주문화원 정재욱 원장과 현대수 사무국장은 지난 수년간 전국 향토문화지 및 향토자료를 공주문화원 도서관에 보관, 수집, 자료정리하여 왔으며, 바쁜업무중에도 2007년 초 도서관에 있는 향토자료 책자를 데이터 베이스 전산구축 완료예정이며, 2007년 홈페이지 개편시 홈페이지에서 책자를 찾아볼수 있게도 구축할 것이다.

공주시민이라면 누구나 전국향토문화자료를 무료로 열람할수 있으며, 2007홈페이지 개편후에는 홈페이지(<http://www.inews.org/gj>) 및 E-MAIL(8529005@hanmail.net)요청으로도 손쉽게 신속하게 찾아볼수 있다. 문의 : 041-852-9005 공주문화원

예술하는 공주시사람들“예인촌” 서른여섯번째 정기공연

2006 공주시민과 함께하는 청소년 어울마당

공주문화원(원장 정재욱)이 주최하고 예술하는 공주시사람들“예인촌”(회장 권재덕)이 주관하는 2006년 마지막 예인촌공연인“청소년 어울마당”공주문화원 강당에서 12월 15일 7시에 개최되었다.

우리지역의 청소년들의 끼와 희망을 마음껏 발산할수 있는 계기와 전통음악과 춤 그리고 댄스 공연을 한자리에 어울려진 이번공연은 미래의 주역이 될 우리 지역의 청소년들에게 큰 희망과 용기가 될수 있는 공주시민 여러분들 및 청소년 여러분의 따뜻한 격려 참여로 이번행사가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번 정기공연은 공부에 지쳐있는 청소년들에게 끼를 발산하고 즐길수 있는 시간으로 초·중·고·대학생들의 특별공연으로 웃다리 사물공연(중동초), 천지창조 한국무용(공주여중), 가야금3주중(안영단외 2명), 가야금 산조(사대부고), 성악(북중), 발레공연(발레블랑), 및 각 8개 고등학교, 대학생들의 댄스 공연, 권재덕 풍물단의 우리소리 등으로 공연되었다.



공주의 명물 이걸재

세상에 아랑곳 하지 않고 생긴대로 살면서 하고 싶은 일 곳곳하게 밀고 나가는 배짱의 사내가 있다. 박수쳐 주고 싶은 멋진 사내. 이걸재씨다. 나는 이 사람을 '공주의 명물 중의 명물'이라 부른다. 다방면에 재주가 많아 그렇게 부르는 이유가 되겠지만 자신이 하는 일에 몰입하는 정도가 보통 사람과는 사뭇 다르기 때문이다. 그의 직업은 공무원이다.

오래전에 그는 <푸념>이란 시집을 3권, 소설집 <궁핍>, 민속 자료집 <두레>, 연극 <황산벌>의 대본을 썼다. 또 2001년 문화 관광과에 근무 할때는 공주 백제 문화제 '웅진성 수문병 교대식'과 '무령왕 즉위식', '동성왕 연희 재연'을 기획 연출하기도 했다.

한참 전에 '푸념'이란 시를 쓸 때만 해도 그에게 내재된 끼는 돌돌 말린 실뭉치처럼 풀리기 전이었다. 나는 그의 시에서 많은 보푸라기들을 보았다. 그런 그가 심우성 선생님을 만난다. 누구나 사람은 자기가 관심을 갖고 또 하고 싶은 일은 만나 '이거다' 싶으면 그 가속은 불이 붙는다.

<석송 등불동제>, <공주의 장치기>, <광정 암수강 다리기>, 등 민속놀이를 발굴하기 시작했다. 또 그가 발굴한 신평면 선학리 <지게 놀이>와 우성 봉현의 <상례소리>로 전국 민속 예술제 에서 수상을 했다. 충남 무형 문화재로 인정 받는데도 큰 공헌을 한셈이다. 열정에 불이 붙은거다.

그는 본디 시골 사람이다. 시골 사람이란 사랑방 정서와 잘 맞는다는 것이다. 그렇게 신이 난 그가 시골의 경로당을 돌며 민속 놀이를 수집하고 소리를 배우고 채록하기 시작했다. 그는 소리꾼으로 거듭나게 된다. 각설이타령, 육타령, 지게질 소리, 상례소리(상여 나갈때 부르는 소리) 등등, 한번 들으면 모두 소리를 기억하는 재주를 지닌 그는 머리 속이 곧 악보이고 그의 소리를 끌어내는 가슴이 연주인 것이다. 천재적이다. 아으 아으~ 소리를 고르는 그의 소리를 듣고 있노라면 모두 빨려 들어간다.

사람은 그가 무엇을 제일 잘하는지 그런게 중요한게 아니라 무엇에 가장 몰입하는가에 따라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게 마련이다. 소리할 때 그를 보면 자기의 소리 속에 빠져 들면서 혼을 내 놓고 흥정하는 것만 같다.

나는 첫번째 개인전 때 이 사람 사진을 걸어 놓고 그 사람보다 내가 더 좋아했었다. 그도 그가 가진 사진 중에 가장 '이걸재 답다'고 좋아라 했었다. 사진 찍는 것을 어색해 하지만 이제 내 카메라는 별로 의식 하지 않아 좋다. 또한 멋있게 안찍는다고 타박을 안해서 좋다. 내가 찍은 사진은 무조건 '이걸재 답다' 그런다. '이걸재 답다'는 것, 그건 아마 내가 찍은 사진이 촌스럽기 때문일 것이다. 촌스러움, 얼마나 편안한가. 자신이 스스로의 혼을 안다는 것, 그것은 또 얼마나 완벽함인가. 나는 그를 진정한 '공주 사람'이라 부른다.

그런 그가 좋은 걸 보면 나도 공주 사람이 다 된 듯하다.



이 걸 재

沃土에 희망의 씨를

조 제 선

농부가 봄이 되면
손바닥 만한 텃밭으로
씨앗을 뿌리듯
우리네 인생의 밭에는
얼마나 많은 씨를 뿌렸던가
어떠한 말의 씨 뿌렸던가
좋은 마음 밭에 좋은 씨 심겨졌을 때
우리의 가슴마다 희망의 가지 뻗어나가고
때가 되면 사랑의 열매로 결실 하나니
대문을 나서면 사회라는 너른 밭에
진정 남겨도 좋을씨
사랑 희망 봉사……

저마다의心田에는 어떤 씨 뿌려볼까
생각해 보는 새해가 되었으면
우리들 마음밭에 뿌려 질
희망의 씨를 위하여
우리 서로
사랑의 밑거름을 듬뿍 뿌려주는
정 해 년!

첫 걸음이 되었으면……

〈조제선 시인 약력〉

청소년 상담원, 청노루 문학회 회원, 국제 시낭송가

한국 문인협회 공주지부 회원

공저 : 원고지 위에 사람들, 시마을 사람들 외 다수

시집 : 가슴의 징소리

주소 : 공주시 봉황동 77-11번지

전화 : 018-454-9075

2007년 공주시 문화행사 안내

축제명	개최횟수 (시작년도)	개최시기	주관단체	주관대표	비고
백제문화제	52회 (1955)	10월	백제문화선양위원회		
계룡산산신제	9회 (1998)	4월	계룡산산신제위원회	구충희	
동학사 불꽃축제	3회 (2004)	3월	동학사 지역연영회	김윤기	
예술과 마을	7회 (2000)	7~8월	예술과 마을행사추진위원회	김윤기	
바곡사 신록축제	3회 (2004)	4월말	바곡사살가번영회	이단우	
고마나무축제	11회 (1996)	7~8월	용진문화회	최용욱	
용진성 수문해고대식	7회 (2000)	4월~10월	용진문화회	최용욱	
갈매산 예술제	7회 (2000)	10월	영평사	한 성	
고마나무 전국향도연극제	3회 (2004)	9월말	용진문화회	최용욱	
계룡산분절 사기축제	3회 (2004)	5월초	계룡산분절사기축제추진위원회	임성호	
탄천면정승제	약480회	음력정월대보름	공주시 탄천면 송학리	마을주민	
백동진관소리 명창명고대회		10월초	백동진관소리선임회		
국제자연미술비엔날레	2년 1회	8월~10월	한국미술가협회		
알밤잡기축제		9월~10월	알밤축제추진위원회		
공주국제미술제		10월~11월	103대전망송국 입암미술관		

2007년 공주문화원 행사 예정 안내

축제명	개최횟수 (시작년도)	개최시기	주관단체	주관대표	비고
대인촌 공연		매월2주 금요일	공주문화원	정재욱	
맹꽁이 실버문화학교		매월	공주문화원	정재욱	
문화농직접사		분기별	공주문화원	정재욱	
우리문화 수화공연		연중	공주문화원	정재욱	
지역문화학교		연중	공주문화원	정재욱	
백일장		연중	공주문화원	정재욱	

알림

「공주문화」는 격월간으로 3,000부 발간하여 국내경향각지에 사시는 우리공주출신인사 여러분들과 각급기관 사회단체 및 공주시민들께 무료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지를 받아보고 계시는 분이 주소가 변경될 시 변경된 주소를 본 문화원으로 알려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으며 앞으로 계속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주소변경으로 반송이 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 이로 인하여 주소를 파악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래 양식에 따라서 전화나 우편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주변에 고향이 공주이거나 연고가 있으신 분도 계시면 함께 알려주시면 그분께도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공주문화」는 고향이신 출향인사나 또는 공주와 인연이 있으신 분에게 무료로 배부해 드리고 있으나 주소변경이나 이웃에 알고 계신분이 있으시면 다음과 같은 양식으로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 음

성명	연령	자택주소	직장 및 직위	전화번호	우편번호	출신지역
----	----	------	---------	------	------	------

- 보낼곳 - 314-1000 충남 공주시 반죽동 184-2

공주문화원

전화 041)852-9005, 852-7600

E-mail:8529005@hanmail.net | 홈페이지:gongju.cult21.or.kr

발행인 정재욱 | 편집위원 이극래, 나태주, 구중회 | 발행처 공주문화원
공주시 반죽동 184-2 전화 041·852·9005, 852·7600 | 인쇄처 공주신문사(전화 041·853·8111)